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www.arteweek.kr](http://www.arteweek.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 현장 스케치

- 01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 02 [개막식] 보통 사람들의 예술, 말을 걸다
- 03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말을 걸다
- 04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마을 아리랑
- 05 특별한 인터뷰\_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 06 한글, 손글씨와 놀다\_명예교사 강병인
- 07 대풍이네 마지막 글요일\_명예교사 노익상





01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0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3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04 예술체험 원정대  
 05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시장과 사람들

06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07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 01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 02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 03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 04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 05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테마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 06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 07 폐막식



# Contents 목차

<b>행사 개괄</b>	014	01-1. 개최 배경
—	015	01-2. 행사 개요
<b>01</b>	016	01-3. 행사 주제 및 슬로건
	017	01-4.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b>추진 과정 및 성과</b>		
—	022	02-1. 추진 체계
<b>02</b>	023	02-2. 추진 과정
	024	02-3. 추진 성과 및 평가
	024	01. 총괄성과 개요
	028	02. 성과와 과제
<b>행사 세부 결과</b>	032	03-1. 모두에게, 말을 걸다
—	033	01.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b>03</b>	035	02. [개막식] 보통 사람들의 예술, 말을 걸다
	038	03.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말을 걸다
	040	04. 특별한 초대_온라인 이벤트
	042	03-2. 주변에게, 말을 걸다
	043	01.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마을 아리랑
	045	02. 특별한 인터뷰_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047	03. 한글, 손글씨와 놀다_명예교사 강병인
	048	04. 대풍이네 마지막 글요일_명예교사 노익상
	050	03-3. 일상에게, 말을 걸다
	051	01.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054	0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62	03.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066	03-4. 서로에게, 말을 걸다
	067	01.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070	02. 예술체험 원정대

072	03_5. 세상에게, 말을 걸다
073	01.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시장과 사람들,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075	02.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금천 남문시장
077	03.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신당 중앙시장
078	03_6. 꿈에게, 말을 걸다
079	01.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081	02.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084	03_7. 내일에게, 말을 걸다
085	01.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087	02.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090	03.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테마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092	04.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094	05. 폐막식

## 홍보

# 04

## 참고자료

# 05

098	04_1. 언론 홍보
099	04_2. 주요 보도 성과
108	05_1. 연설 및 발표 자료
108	01. 개막식 개막인사
109	02. 개막식 개막선언
110	03. 개막식 강연 01
115	04. 개막식 강연 02
129	05. 폐막식 축사
130	06. 폐막식
135	07. 폐막식 현장의 메시지 01
136	08. 폐막식 현장의 메시지 02
137	05_2. 참가자 소감
140	05_3. 홍보 제작물

## 참여하신 분들

# 06

148	06. 참여하신 분들
-----	-------------



# CONTENTS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01

>>

## 행사 개괄

- 01\_1 개최 배경
- 01\_2 행사 개요
- 01\_3 행사 주제 및 슬로건

>>

01

01. 행사 개괄 >>

## 01-1 개최 배경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201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발의했고,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유네스코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 2012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201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에 따라 2012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열렸고,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선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교육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 주간 선포 행사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성과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2013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으며, 이번 주간 행사에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387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국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01. 행사 개괄 >>

## 01-2 행사 개요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b>일시</b>	2013년 5월 19일(일) ~ 5월 25일(토)
	<b>장소</b>	서울 도심,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각급 학교 등
	<b>참가</b>	유아, 초중고 학생, 학부모, 시민, 문화예술교육계 전문가 등
	<b>홈페이지</b>	www.arteweek.kr
	<b>주최</b>	문화체육관광부
	<b>주관</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1. 행사 개괄

>>

## 01-3 행사 주제 및 슬로건

주제 및 슬로건

>

###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년도 주간 행사는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개념 아래, 일상에서 보통 사람이 공유하고 추억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7가지 세부 주제로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렇게 변화된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치유해나갈 수 있다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기획이었다.

BI

> 하나의 긴 통로·길을 형상화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단편적이지 않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01. 행사 개괄

>>

## 01-4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모두에게, 말을 걸다**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 공연형  
개막식  
특별한 초대 / 온라인 이벤트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말을 걸다 / 전시형

**주변에게, 말을 걸다**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마을 아리랑 / 전시형  
특별한 인터뷰\_고향,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 공연형  
한글, 손글씨와 놀다\_명예교사 강병인 / 체험형  
대풍이네 마지막\_금요일\_명예교사 노익상 / 체험형

**일상에게, 말을 걸다**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 체험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체험형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 체험형

**서로에게, 말을 걸다**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포럼형  
> 불꽃을 피우자!\_꿈은 이루어진다!  
> 예술강사,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다!  
> 예술강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즐고 있던 Artist를 깨우다!  
> 내가 하는 예술교육이 예술이다!  
> 예술 + 교육 = 예술교육?  
> 오래된 시작 새로운 끝\_예술강사의 웃을 입대!  
> 우리는 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 예술강사가 만드는 행복한 교실!  
예술체험 원정대 / 체험형  
> 네 개의 방에서 보물을 찾아라  
> 우당탕탕 신나는 우리학교  
> 화를 풀고, 화끈하게, 화목한 소통~ 화통  
> 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 4색 행복 비빔밥

**세상에게, 말을 걸다**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 체험형  
> 시장과 사람들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신당 중앙시장)  
>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금천 남문시장)

<b>꿈에게, 말을 걸다</b>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 공연형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 공연형
<b>내일에게, 말을 걸다</b>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 포럼형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 포럼형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템아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 포럼형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 포럼형 폐막식

<b>5월 19일(일)</b>	공연형 포럼형 포럼형 체험형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서울) 시민토크쇼 – 왓지지컬 사랑방 (경기 군포)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예술강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즐고 있던 Artist를 깨우다! (서울)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서울, 대전, 춘천)
<b>5월 20일(월)</b>	<b>개막식</b> 포럼형 체험형 체험형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오래된 시작 새로운 끝_예술강사의 옷을 입대! (대전) 예술체험 원정대 : 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경남 함안) 예술체험 원정대 : 우당탕탕 신나는 우리학교 (경북 울진)
<b>5월 21일(화)</b>	포럼형 체험형 체험형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예술강사,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다! (서울) 예술체험 원정대 : 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경남 함천) 예술체험 원정대 : 우당탕탕 신나는 우리학교 (경북 안동)
<b>5월 22일(수)</b>	체험형 포럼형 포럼형 포럼형 포럼형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광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예술강사가 만드는 행복한 교실 (전북 전주)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서울)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서울)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템아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서울)
<b>5월 23일(목)</b>	공연형 포럼형 포럼형 체험형 체험형	특별한 인터뷰_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서울)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템아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대전)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예술 + 교육 = 예술교육? (인천) 예술체험 원정대 : 네 개의 방에서 보물을 찾아라 (경북 청도) 예술체험 원정대 : 화를 풀고, 화끈하게, 화목한 소통~ 화통 (경북 상주, 김천)
<b>5월 24일(금)</b>	체험형 체험형 포럼형 포럼형 포럼형 포럼형 체험형	한글, 손글씨와 놀다_명예교사 강병인 (경남 함천) 대풍이네 마지막 글요일_명예교사 노익상 (강원 춘천)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서울)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불꽃을 피우자_꿈은 이루어진다! (서울)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내가 하는 예술교육이 예술이다! (경기)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우리는 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부산) 예술체험 원정대 : 화를 풀고, 화끈하게, 화목한 소통~ 화통 (경남 함안)

<b>5월 25일(토)</b>	<b>폐막식</b> 공연형 전시형 체험형 체험형 체험형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서울) 나의 소망전, 소망글쓰기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국) 예술체험 원정대 : 4色 행복 비빔밥 (경남 함안, 남해)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서울, 부산)
<b>상시</b>	공연형 체험형 체험형 체험형 체험형 전시형 전시형 이벤트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서울) (5/19, 5/21~5/24)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 시장과 사람들 (충북 청주)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서울)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서울)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전국)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마을 아리랑 (경기 군포/서울)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말을 걸다 (서울) * 20일(월) 휴관 특별한 초대 (~5/24)

**요일별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02

>>

## 추진 과정 및 성과

02\_1 추진 체계

02\_2 추진 과정

02\_3 추진 성과 및 평가

1. 총괄성과 개요

2. 성과와 과제

>>

02



02. 추진 과정 및 성과 >>

## 02-3 추진 성과 및 평가

### 01 총괄성과 개요

####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구분	운영 프로그램수 (건)
개·폐막식	2
기획 프로그램	118
사업 연계 프로그램	267
합 계	387

####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프로그램 구분	참여인원 (명)
개·폐막식	412
기획 프로그램	18,650
사업 연계 프로그램	20,041
합계	39,103

#### 홍보 보도 실적

항목	방송	일간지	온라인	총계
계재기사 수	10	145	155	310

#### 세부 프로그램별 참가자수

핵심과제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모두에게,	개막식	5.20(월), 17:00~18:30	남산국악당	293
말을 걸다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_	5.19(일), 16:00~20:00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353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			
	특별한 초대	5.19(일)~24(금)	서울지역 공연장·미술관	96
	문화예술교육,	5.19(일)~25(토)	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	6,125
	모두에게 말을 걸다	*월요일 휴관		
	문화예술 명예교사	5.24(금), 13:10~15:40	경남 합천/용주초교	50
			(강병인 명예교사)	
		5.24(금), 19:00~21:00	강원 춘천/대풍이네한책방	
			(노익상 명예교사)	
주변에게,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	5.19(일)~24(금)	군포문화예술회관	500
말을 걸다	마을 아리랑 (총2회)		제2전사실	
		5.25(토)~26(일)	서울시민청 활짝라운지	
	특별한 인터뷰_고함,	5.23(목), 20:00	서울/성동고	100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일상에게,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5.19(일), 13:00~17:00	서울/어린이대공원	4,720
말을 걸다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총6회)	5.19(일), 13:00~16:00	대전/청소년문화마당	
		5.19(일), 13:00~16:00	춘천/춘천교육대학교	
		5.22(수), 13:00~16:00	광주/아시아문화마루	
		5.25(토), 13:00~16:00	부산/공리마루	
		5.25(토), 13:00~17:00	서울/광화문광장	
		5.25(토), 9:00~20:00	전국 16개시·군·구	8,83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40회)			
	뮤지엄 페스티벌_	5.19(일)~25(토),	전국 사립미술관	9,276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9:00~20:00		

핵심과제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서로에게, 말을 걸다 (총8회)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5.19(일), 11:00~13:00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96
		5.20(월), 16:00~20:00	대전/국제연극연구소 '휴'	
		5.21(화), 18:00~20:00	서울/Thinkcafe with Cafe the way	
		5.22(수), 18:00~20:00	전주/부채문화관	
		5.23(목), 18:00~21:00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24(금), 18:00~20:00	서울/난지공원 캠핑장D구역	
		5.24(금), 16:30~20:00	부산/카페 티티카카 키친	
		5.24(금), 16:00~18:00	경기/고양아람누리	
예술체험 원정대 (총10회)		5.20(월), 9:00~12:00	경북/매화초	734
		5.20(월), 10:00~12:30	경남/외암초	
		5.21(화), 9:00~12:00	경북/와룡초	
		5.21(화), 10:00~12:30	경남/대병초	
		5.23(목), 9:00~11:30	경북/화령초	
		5.23(목), 14:00~16:30	경북/아포초	
		5.23(목), 9:00~12:00	경북/남성현초	
		5.24(금), 9:00~12:00	경남/칠서초	
		5.25(토), 9:30~12:00	경남/함안중	
	5.27(월), 10:00~12:30	경남/지족초		
주변에게, 말을 걸다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5.19(일)~25(토)	충북 청주/가경터미널시장	2,000
	시장과 사람들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5.19(일)~25(토)	서울/중앙시장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5.19(일)~25(토)	서울/남문시장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핵심과제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꿈에게, 말을 걸다	밴드의 리어카,	5.25(토), 13:00~17:00	광화문광장	2,000
	광화문을 굴리다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5.19(일), 13:00~15:30	두타쇼핑몰 앞 광장	2,500
		5.21(화), 12:00~14:30	광화문광장	
		5.22(수), 12:00~14:30	광화문광장	
		5.23(목), 12:00~14:30	광화문광장	
		5.24(금), 14:00~16:30	광화문광장	
	예술꽃씨앗학교 공연(4회)	5.22(수), 25(토) 13:00~16:00	광주/부산	200
내일에게, 말을 걸다	토크쇼, 말을 넘어서 :	5.22(수), 14:00~17:00	스페이스 노아	60
	해외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_ 시스템마 혁신 (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5.22(수), 14:00~17:00	서울/페럼타워 3층 페럼홀	345
	캐나다 뉴브런스윅	5.23(목), 13:00~17:00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_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5.22(수), 10:00~17:00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20층 국제회의장	300
	문화예술교육 포럼_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5.24(금), 13:00~18:30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20층 국제회의장	300
	폐막식	5.25(토), 17:00~18:00	서울/페럼타워3층 페럼홀	119

## 02 성과와 과제

### 행사성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매개자)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했으며, 완성도 높은 향유자 밀착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 **시민의 삶과 밀착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일반인 참여 기회를 확대**

주간 행사 첫해였던 2012년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대형 이벤트성 프로그램 구성이 많았다면, 2013년은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시민의 삶의 현장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일반 대중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 **업무 효율과 프로그램 다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매개자)와의 협업 확대**

2012년 주간 행사가 진흥원 주도의 기획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면, 2013년 주간 행사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매개자)와의 협업으로 완성도 높은 '향유자 밀착형' 프로그램들이 선보였으며, 주간 행사의 '새로운 운영 시스템(매개자 연계, 권한과 책임 부여)'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 **주간 행사를 상시화 할 수 있는 정례 프로그램 틀 마련**

예술강사, 매개자, 향유자가 함께한 개·폐막식,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워크숍박람회,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프로그램 등은 주간 행사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교육 지역 균형과 자발적 참여 시도**

중앙 단위만의 행사에서 탈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요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지역 균형에 이바지했고(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박람회, 예술체험 원정대,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토요문화학교 등), 지역 광역센터에서 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자발성을 보여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기록 DB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을 고려해, 현장 모니터링과 프로그램별 현장 기록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했으며, 프로그램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 개선 과제

대중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슬로건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나, 세부프로그램과 슬로건의 관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 필요**

행사 추진단이 뒤늦게 구성되어 물리적 준비 기간이 부족하였다. 특히 장소 대관과 주요 인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주간 행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기획 확대**

주간 행사 기간 동안 상시화 할 수 있는 정례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스토리 발굴 및 사전 홍보 전략 수립 필요**

주간 행사 기간 중 현장 중심의 홍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개별 프로그램의 의미와 화제 인물 등의 사연 발굴이 부족했다. 주간 행사만을 위한 단기 집중 홍보가 아닌, 사전에 주제 또는 사업별 요소를 발굴해 심도 있게 취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중심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

지역의 기관이나 인적 자원과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에서는 상징적인 행사를 집중해 추진하되, 지역에서는 지역 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03

>>

## 행사 세부 결과

- 03\_1 모두에게, 말을 걸다
- 03\_2 주변에게, 말을 걸다
- 03\_3 일상에게, 말을 걸다
- 03\_4 서로에게, 말을 걸다
- 03\_5 세상에게, 말을 걸다
- 03\_6 꿈에게, 말을 걸다
- 03\_7 내일에게, 말을 걸다

>>

03

# 03-1



## 모두에게, 말을 걸다

- 01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 02 개막식
- 03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말을 걸다
- 04 특별한 초대

### 공연형



##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 16:00~20:00  
**장 소**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참 가** 353명  
**디 력 터** 안은미 컴퍼니

### 주요 내용

> 일반인 40명이 참여해 몸짓으로 2분간 각자의 삶이 묻어나는 자신만의 무대를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그 감동을 함께 나눈 프로그램. 춤은 특별한 교육 없이도 누구나 몸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며, 이는 20세기 춤의 혁명가 피나 바우쉬가 우리에게 남긴 예술 정신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예술 정신에 따라 누구나 안무가이며 무용가가 될 수 있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시간	타이틀	구분	내용
16:00~17:00	댄스 시리즈	영상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어르신, 아줌마, 아저씨, 청소년 등 모든 사람들의 춤을 영상으로 기록 및 상영
17:00~18:30	피나 안 인 서울	춤 공연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다'는 피나 바우쉬의 정신을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로 실현한 '피나 안 인 서울' 일반인 40명이 사전 워크숍을 통해 춤을 배우고 무대를 기획 및 연출
18:30~19:00	흔들어보세요!	관객참여	안은미 컴퍼니 무용수와 함께 간단한 춤을 배우는 시간
19:00~20:00	밴드공연	관객참여	'엘로우 몬스터즈' 공연

### 성과와 과제

> 일반인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느낌을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에 올렸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짓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한 공연자는 물론, 가까이에서 그 몸짓을 함께한 관람객은 공연자의 인생을 이해하는 등 공연자와 관객 모두 춤을 매개로 문화예술을 체험했다.

> 40명의 안무가이자 무용가는 '춤'이라는 예술로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경험을 나눴고,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춤이 어렵거나 생활과 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장르임을 확인했다. 일반인의 예술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개막식] 보통 사람들의 예술, 말을 걸다

일 시 2013년 5월 20일(월) 17:00~18:30  
장 소 서울남산국악당  
참 가 293명  
디 력 터 (주)비타민컴

### 주요 내용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개막 선포식과 국내외 인사의 강연,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시간	구분	세부내용
16:00~17:00	참가자 확인 및 티켓 발권	
16:30~17:00	사전 퍼포먼스	극단 연미
17:00~17:05	개막 퍼포먼스	극단 연미, 예술꽃씨앗학교 어린이
17:05~17:08	개막 영상	
17:08~17:15	축하 공연 1	예술강사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판" : 돈 보스코 직업훈련원 학생, 강사
17:15~17:20	축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7:20~17:23	주간 홍보 영상	
17:23~17:43	강연 1	김영하 (소설가) 주제 :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삶
17:43~18:03	강연 2	Dr. Ernst Wagner (유네스코 석좌교수) 주제 : Diversity of Approaches to Arts Education
18:03~18:18	축하 공연 2	인제남초등학교 (예술꽃씨앗학교)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
18:18~18:20	개막 선언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18:20~18:30	환송 및 기념 촬영	



**성과와 과제**

> 보통 사람들의 예술이라는 주제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강연, 공연, 시 낭송 등의 행사에 참여했다. 각계 전문가, 비전문가,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까지 저마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주간 행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행사의 개막식인 만큼 대중과 함께 소통하면서도 더욱 입체적이고 개성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과전시

>>

#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말을 걸다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09:00~21:00  
**장 소** 서울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  
**참 가** 6,125명  
**디 력 터** (주)비타민컴

성과와 과제

- >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키워드와 시기별 프로그램 성과를 시각적으로 구성해 관람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소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스마트폰으로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다양화했다.
- > 전시 형태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구현 방안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람 계층을 확대할 아이디어의 필요성과 함께 주간 행사에서 펼쳐지는 포럼,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 2005년부터 펼쳐온 8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발자취를 시민과 공유한 소통의 자리. 그간 진행해 온 각종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주제와 현황, 효과 등을 시청각 멀티미디어로 구현하여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구분	핵심키워드	주요내용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가치의 확산	예술과 문화를 교육현장으로
		문화 감수성에서 창의성으로
	접근성의 확대	개인의 창의에서 사회의 창의성으로
		교과수업에서 학교 문화로
협력의 확장	학교문화에서 삶의 문화로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로	
	다양한 주체의 결합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인의 발견	문화 복지의 효과
		창의성의 발현
		치유로서의 예술
	지역의 공감	동력의 발굴
		지역의 활력
	공동체의 복원	공동체의 복원
		사회의 변화
지속 가능성		
문화 다양성		



온라인 이벤트 >>

## 특별한 초대

**일 시** 2013년 05월 19일(일)~05월 24일(금)  
**장 소** 서울 지역 공연장과 전시장 6곳  
**참 가** 96명  
**디렉터** (주)비타민컴

### 주요 내용

> 온라인 이벤트로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벤트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간 행사 동안 서울 지역 6곳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회 티켓을 선물했으며 주간 티켓과 요일 티켓으로 나눠 운영했다.

주간티켓 (총5명)	요일티켓 (총22명)	내용
5일 내내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 6개 제공	신청한 공연·전시 중 1개 관람	4. 22(월) 이벤트 오픈/웹페이지 티저 오픈 → SNS 이벤트 진행 → 5. 6(월) 당첨자 발표 → 5. 10(금) 티켓 우편발송 → 5. 13(월) 티켓 도착 여부확인 *티켓구성 (1인 2매)

공연(전시)명	일시	장소	내용
레미제라블	5. 21(화) 20:00	블루스퀘어	장발장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5. 22(수) 15:00	삼성전자홀	
	5. 23(목) 20:00		
	5. 24(금) 20:00		
어린이 캣츠	5. 21(화)~5. 24(금) 14:00	동양아트홀	고양이들의 성장기를 담은 어린이를 위한 라이브 가족 뮤지컬
	5. 21(화) 20:00	코엑스	서툰 도둑과 까칠 그녀의 하룻밤 대소동 이야기를 담은 코믹한 연극
5. 22(수) 17:00	아트홀		
5. 23(목) 20:00			
5. 24(금) 17:00			

공연(전시)명	일시	장소	내용
셜록	5. 21(화)~5. 24(금) 20:00	대학로 스카이 씨어터	셜록 홈즈의 모험담을 담은 연극
	5. 24(금) 20:00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어반자카파 콘서트	5. 24(금) 20:00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2013 어반자카파의 봄
슈타이들展	5. 21(화)~5. 24(금)	대림미술관	책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슈타이들과 아티스트의 협업과정을 입체적으로 전시
Love Actually 展	5. 21(화)~5. 24(금)	서울미술관	사랑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미술작품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전시

### 성과와 과제

> 온라인 이벤트를 매개로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SNS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었으며,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정된 시민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연 작품과 전시회 선정에 시간이 지연되어 좌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시간 여유를 갖고 온라인 이벤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03-2



## 주변에게, 말을 걸다

- 01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 마을 아리랑
- 02 특별한 인터뷰, 고향\_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 03 한글, 손글씨와 놀다\_명예교사 강병인
- 04 대풍이네 마지막 글요일\_명예교사 노익상

### 전시형



##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 마을 아리랑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6일(일)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2전시실(5. 19~24)  
 서울시민청 활짝 라운지(5. 25~26)  
**참 가** 500명  
**디 력 터** 군포문화재단

### 주요 내용

- > 미술 활동으로 나눔과 소통, 치유의 과정을 체험해본 시민 참여 프로그램. 민중작가 김봉준과 군포 시민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 <님얼 붓그림전>은 시민들의 사연을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또한, 마을의 꿈과 신화와 상징을 담은 <마을의 꿈 조각전>, <시민 토크쇼 - 왓자지껄 사랑방> 등의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시	프로그램 명	구분	내용
5. 19(일)~5. 26(일)	<나의 소망전> 군포시민의 님얼 붓그림전	전시	김봉준 화백의 시민들의 얼굴과 소망글을 담은 붓그림 전시 종료 후 참여자에게 그림 증정
5. 19(일)~5. 26(일)	<마을의 꿈 조각전> 신화와 상징 동물 조각전	전시	시민문화의 핵심인 마을문화의 신화적 재해석을 통한 상징 조각전
5. 19(일) 13:30~15:00	<시민토크쇼> 왓자지껄 사랑방	토론	1부: 나의 소망전 참여자들의 소망풀이 토크쇼 2부: 시민 문화의 바람직한
5. 25(토) 13:00~14:00	나의 소망전, 소망글쓰기 이벤트	이벤트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소망 글쓰기

### 성과와 과제

- > 시민들은 자신의 사연과 소망이 작품화되고 전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스스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문 예술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 앞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해 일반인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늘려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공연형

>>

## 특별한 인터뷰\_ 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20:00~21:00  
장 소 성동고등학교 운동장  
참 가 100명  
디 력 터 문화예술놀다

주요 내용

> 지난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배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진행했던 <담, 談 : 학교 담을 넘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남학생들과 함께 작업했다. 이 시대 평범한 남학생들이 가진 복잡성과 억압감을 단순하고 원초적인 '고함'으로 이끌어내, 이 '고함'을 2개월간 사진과 영상에 담아 전시하고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시	구분	내용
5. 23(목) 09:00~21:00	사진 전시	고함치는 긴장된 얼굴의 근육과 붉게 올라온 핏대, 크게 벌어진 입과 일그러진 얼굴 등을 대형 사진으로 출력하여 전시
5. 23(목) 20:00~21:00	영상 상영	고함치는 행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 제작·상영

성과와 과제

>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이라는 매체에 담는 과정에서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예술이 멀거나 어렵지 않음을 직접 체험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 청소년의 이야기 공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선생님이나 학부모 등 주변인으로 소통의 통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키워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체험형

>>

## 한글, 손글씨와 놀다\_ 명예교사 강병인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13:10~15:40  
 장 소 경남 합천 용주초등학교  
 참 가 30명  
 명예교사 강병인

주요 내용

> 캘리그래퍼 강병인 명예교사가 문화 소외 지역의 작은 학교에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한 프로그램. 일반적인 강의를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영감을 손글씨로 쓰면서 표현력을 기르는 동시에 한글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과와 과제

>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명예교사와 만나 평소에 접하지 못한 '캘리그래피' 예술을 체험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접해보았다.

> 앞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업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체험형

>>

## 대풍이네 마지막 글요일\_ 명예교사 노익상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19:00~21:00  
 장 소 강원도 춘천 대풍이네 헌책방  
 참 가 20명  
 명예교사 노익상

주요 내용

> 헌책방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명예교사, 책방주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 이 곳(춘천)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성과와 과제

- >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교사를 섭외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임을 가져 프로그램의 밀착도를 높였다. 또한 책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쉽게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
- > 책을 매개로 이야기한다는 발상은 좋았으나,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진행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03-3

>>>

## 일상에게, 말을 걸다

- 01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 0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03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체험형

>>

##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장 소** 서울 어린이대공원(5. 19)/ 대전 청소년문화마당(5. 19)/  
춘천 춘천교육대학교(5. 19)/ 광주 아시아문화마루(5. 22)/  
서울 광화문광장(5. 25)/ 부산 궁리마루(5. 25)

**참 가** 4,720명

**디 력 터** 사회적기업 노리단, 조선 그루브, 몽땅

주요 내용

> 참여자 주도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워크숍 박람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2012년 주간 행사 시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이 2013년에는 5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날짜	지역	장소	프로그램명
5. 19(일) 13:00~17:00	서울	어린이대공원	천개의 표정 천개의 감정/ 놀라워라 내 몸의 리듬/ 미안(美安 커뮤니티댄스)/ 너와 나의 뜻밖의 초상화/ 나만의 시그니처 에코백/ 음악은 소통의 퍼포먼스/ 박스에 그래피티/ 도시는 음악의 재료/ 악기로 동물되기/ 나뭇조각 모자이크/ 탐부 밤부
5. 19(일) 13:00~16:00	대전	청소년문화마당	시간의 주인/ 책의 재구성/ 아프리카 쟼베 체험/ 우리가 만드는 세상/ 총으로 그린 그림 Shot/ 내 이름에 활을 쏘다/ 핸디 커피 로스팅/ 내 가슴의 뱃지/ 내가 만든 라임/ '꼴 甲' 내가 누구게?!/ 거리공연
5. 19(일) 13:00~16:00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00로고 송 만들기/ 몸과 마음 사이/ 보이스 오케스트라/ 세상 모든 놀이, 여기 여기 붙여라/ 씨실과 날실의 관계 엮기/ 업사이클링 공작소/ 요구르트 병으로 오리사냥/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춤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헌 옷의 변신은 무죄

날짜	지역	장소	프로그램명
5. 22(수) 13:00~16:00	광주	아시아문화마루	천개의 표정 천개의 감정/ 놀라워라 내 몸의 리듬/ 미안(美安 커뮤니티댄스)/ 너와 나의 뜻밖의 초상화/ 나만의 시그니처 에코백/ 음악은 소통의 퍼포먼스/ 박스에 그래피티/ 도시는 음악의 재료/ 악기로 동물되기/ 나무조각 모자이크/ 탐부 밤부/ 광주 예술꽃씨앗학교 공연
5. 25(토) 14:00~17:00	부산	궁리마루	새피리만들기/ 나무놀이/ 손베들짜기/ 폼클레이 가면 만들기/ 두루미 만들기/ 고동만들기/ 카주만들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르떼 그리기/ 에코 소리놀이터
5. 25(토) 13:00~17:00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	천개의 표정 천개의 감정/ 놀라워라 내 몸의 리듬/ 미안(美安 커뮤니티댄스)/ 너와 나의 뜻밖의 초상화/ 나만의 시그니처 에코백/ 음악은 소통의 퍼포먼스/ 박스에 그래피티/ 도시는 음악의 재료/ 악기로 동물되기/ 나무조각 모자이크/ 탐부 밤부

성과와 과제

- >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단순하고 딱딱한 수업 형태의 워크숍이 아닌, 가족과 지역 예술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 > 앞으로 내실화를 기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시행,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 강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체험형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일 시** 2013년 5월 25일(토) \*기간별 시간 상이  
**장 소** 전국 16개 시·군·구  
**참 가** 8,836명

주요 내용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과 연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특별 프로그램. 기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센터, 단체, 기관의 주도 하에 140여 개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기관 현황 및  
참가인원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1	서울	문화놀이터 액션가면	똑딱똑딱 어린이공연예술창작소	20
2	서울	성북문화재단	연극 영화를 만나다	50
3	서울	성북 초록옥상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10
4	서울	아츠리퍼블릭	예술로 떠나는 세계사 여행 '리를 유네스코'	60
5	서울	예술과시민사회	나만의 드림하우스,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20
6	대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전충남지회	〈연극나라 상상놀이〉 나만의 책 만들기	5
7	대전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대전지부	창극-심학규연	25
8	대전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지회	춤으로 만드는 세상! "춤,만,세!"	100
9	대전	공감만세	동네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여행	30
10	대전	극단 토끼가 사는 달	응답하라! [MY DREAM] 나의 꿈을 찾아서 - 거리퍼레이드	10
11	대전	나무시어터	'탈탈탈' 전시회와 즉흥극 발표	16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12	대전	대전갈마도서관	우리가족 바람개비 연필 공원 만들기	70
13	대전	대전서구문화원	음악극 만들기	27
14	대전	대전중구문화원	봉신탈춤의 새로운 탄생	40
15	대전	대흥 청소년문화의집	우리문화소개teen	75
16	대전	둔산도서관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 청소년과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15
17	대전	미술공감편편아트	아빠와 미술공감	30
18	대전	백제문화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재캠프	100
19	대전	비노클래식	징검다리	22
20	대전	시와정신	문학은 참 좋은 친구	35
21	대전	용운도서관	스미고 번지다	60
22	대전	진잠도서관	들썩들썩 우리예술 운동회	50
23	대전	택견연합회	택견소품, 작품 전시 관람	28
24	대전	한밭문화마당	무형 문화재와 함께하는 대전의 멋! 탐구	35
25	대전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움직임 이야기가 있는 가면 놀이	50
26	대구	(사)국악사랑 해마루	가족이 함께 하는 국악여행!	80
27	대구	달성문화센터	지붕없는 박물관-달성역사탐방 '육신사에 모셔진 할배들은 어떤분들일까?'	25
28	대구	박물관수	할머니가 들려주는 100년의 지혜	50
29	대구	서구청청소년수련관	신·토·불·이(신나는 토요일 큰것을 배운다)	26
30	대구	예술과소통	아트 플레이!! 토요일 예술과 놀자!	45
31	울산	극단 무	FUN, FUN, FUN, 즐거운 멘붕 탈출! (극단 무(無)와 함께하는 연극체험 활동)	50
32	울산	예술교육연구모임 담쟁이	인물화로 보는 동서양의 다른 시각, 혹은 같은 시각	40
33	울산	문화예술 틈	예 돌아놀자	40
34	울산	문화예술센터 결	청소년, 시로 꿈을 읽다_ 그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	20
35	울산	울산기록연구원	울산 사계절 이야기	50
36	울산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일상만끽감성프로젝트 '카메라로 말해요'	50
37	울산	울산미디어연대	미디어로 작난(作亂)치다	50
38	울산	울산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와 춤추는 노래들	50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39	울산	울산연극배우협회	꿈을 이루어 DREAM니다	40
40	울산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나르샤	빛으로 물들이기	25
41	울산	행복한교육연구소	세계문화유산 플라모델 만들기과 퍼즐꾸미기	60
42	부산	(사)남산놀이마당	소통아!! 함께놀자	20
43	부산	(사)문화예술인적자원 개발센터	오색찬란 샐러드 볼 프로젝트	12
44	부산	(사)한국문화예술 진흥회	우리가 만드는 에코(echo) 스토리(story)	28
45	부산	(재)동양문물연구원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하기	50
46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재미난 엔터테인먼트, G(금정)팝스타	40
47	부산	동래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사진전, Rainbow Family 합창공연	100
48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우리는 찰방찰방 예술단'과 함께하는 찰방찰방	80
49	부산	문화사업단 필인	시네통(cine-通)	25
50	부산	미술교육연구소 ARTO	청소년 부산 탐사보고서	40
51	부산	미야아트댄스컴퍼니	하나가 되는 몸짓 토요일문화	30
52	부산	장애와 차별없는 세상만드는 주춧돌 버텨	소규모 모래사장 바나나 체육대회	20
53	부산	부산문화연구회	책과 함께 연극에 빠지다	30
54	부산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토요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대!Q를 외쳐라!"	30
55	부산	영도문화예술회관	우리 동네 즐거운 탐방	50
56	부산	오픈스페이스 배	숲 속 미술관 - 사우드 스케치	40
57	부산	인디고 서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정세청세)	120
58	부산	장르버라이어티어티판	노·춤·연(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며 연기하자)	50
59	부산	희망세상	불어라, 평화바람	50
60	부산	BS부산은행 조은극장	토요일 신나는 뮤지컬 여행	30
61	경기	가일미술관	Fun, Fun 명랑아카데미(활짝웃는미술)	20
62	경기	부천시활박물관	체험!가족 도슨트	50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63	경기	판교생태학습원	자연무용	20
64	경기	페어라이프& 이매진피스	동네를 디자인하라 & 동네, 예술을 만나다	20
65	강원	(사)한지개발원	한지속에서 피어나는 과학예술학교	20
66	강원	강릉농악보존회	강릉농악 악기 체험	30
67	강원	강릉문화재단	강릉아트마켓 참가하기	500
68	강원	극단치악무대	리듬으로 만나는 연극활동	14
69	강원	노리소리 강원두레	국악기와 협연	40
70	강원	속초 청소년문화의집	부모님과 함께하는 3GO - 공감하고 표현하고 추억하고	20
71	강원	원주 씨어터컴퍼니	토마토 웃끼	35
72	강원	원주문화재단	2013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 예술더하기 '맛있는 책읽기'	45
73	강원	태백탄광문화 연구소-BOW	갱도에서 시골벽적(강의형,체험형,실연형 미술수업) 시골벽적 체험단 박물관 나들이 (나눔과 소통의 시간 갖기)	35
74	강원	프로젝트시공간	움직이는 교실 "심장이 똥대! 쿵쿵쿵쿵"	70
75	충북	신미술관	공간을 이동하는 그림	8
76	충남	금강아트센터		
77	충남	공주문화원		
78	충남	한국무용협회 계룡시지부	꿈다락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행복 바이러스	60
79	충남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80	충남	숲속마을작은학교		
81	충남	도적골교육농장		
82	충남	해물도예연구소		
83	충남	도비문화예술체험 학교	꿈다락 가족문화학교 "엄마, 아빠 같이 학교가요!"	40
84	충남	서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85	충남	나오리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86	충남	입림미술관		
87	충남	천안지역사회교육 협의회		
88	충남	문화공감대	놀이꾼들의 자연 속 休 . com	20
89	충남	김한중의사기념관		
90	충남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1	충남	청운대학교스마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92	충남	홍성생태학교 나무		
93	충남	희망꿈작은도서관	문화예술교육, 지역과 소통하다	50
94	충남	한국미술협회 서천지부		
95	충남	에스빈추라		
96	전북	사단법인 교동아트	전시와함께하는 예술가탐험	30
97	전북	부안문화원	창작뮤지컬 '꼬마 매창' 시즌2	50
98	전북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	'우리 동네 이야기꾼은 바로 나!' 국악 - 중앙시장 소리 탐방 무용 - 미륵사지 설화 탐방 연극 - 익산역 탐방과 기차역 '런닝맨'	40
99	전북	섬진강 여행학교	섬진강 문학수업	25
100	전남	(사)문화사업진흥회	세계속에 한류로 꿈을 꾸라	100
101	전남	광양장도박물관	꿈지락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문화 - 꿈을 담은 연등만들기	100
102	전남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이야기가 있는 스테츠타임	30
103	전남	나주 천연염색문화재단	색깔있는 토요일을 만나다	30
104	전남	다산미술관	나무로봇과 함께해요	15
105	전남	담양문화예술발전소	대나무와 음악	50
106	전남	목포무용협회	'친구야 나는 네가 좋아' -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또래 친구들	40
107	전남	목포문화재단	뿌리 찾아, 힐링 찾아	30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108	전남	보성채동선합창단	채동선 음악세계 인간시대	30
109	전남	아트포	아트포 운영 결과발표회	41
110	전남	염암문화원	토요벽화교실 - 나도 화가다	40
111	전남	진도문화원	토요강강술래 학교	60
112	경북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	Wow! 우리는 뮤지컬패밀리DA!	29
113	경북	문경문화원	다함께 부르는 문경새재아리랑	50
114	경북	안동문화원	부모와 함께하는 안동이야기탐험대	40
115	경북	상주외서마을도서관	할머니, 우리 마을에 장이 섰데요~ 문화예술센터	100
116	경남	거제조선해양문화관	독도 및 독도생물 사진전, 체험행사	2,975
117	경남	경남민주언론 시민연합	"우리도 미디어 star"	20
118	경남	극단고도	가족이 함께 해요, 즐거운 연극 체험!	38
119	경남	극단마루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지역, 그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	120
120	경남	극단마산	"애들아, 가배에서 탈춤추며 놀자."	80
121	경남	김해여성복지회	가야를 품은 어린작가	30
122	경남	대산미술관	우리가족 스토리북 만들기'말할수 있는 비밀'	30
123	경남	대암신선 초록정보화마을	재미있는 탈(가면)이야기	20
124	경남	김해수채화협회	환경손수건 만들기	100
125	경남	(사)아름나라철부지	2013 제 3회 짙레꽃 향기, 작은음악회	45
126	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	아나바다 나눔 음악회	100
127	경남	(사)경남 정보사회연구소	토요일마다 맛있는 마을도서관	30
128	경남	진주오광대보존회	지역 축제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참여하기	25
129	경남	진주YMCA	진주 이야기보따리 탐험대	48
130	경남	창원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국악만들기	80
131	경남	창원문화원	어린이 박물관대학	27
132	경남	창원시김달진문학관	제2회 문학캠프	20
133	경남	창원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통통 미술놀이로 상상의 나라를 펴자	50

연번	지역	기관명	주간 행사 프로그램 명	참가인원(명)
134	경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센터 춤 공간-나눔	밀양아리랑으로 소통하다!	87
135	경남	통영옷칠미술관	옷칠예술이야기	100
136	경남	예비사회적기업 (주)파이디아	오천년 한국인의 얼굴	120
137	경남	합천원드오케스트라	악기야 놀자!	70
138	제주	우당도서관	스토리(Story)로 힐링(healing)하자!	15
139	제주	제주문학의집	제주설화 속으로 풍덩- 보물창고 뒤지기	30
140	제주	컴투루	도서관 속 시네마원정대	20
총 참가인원(인)				8,836

성과와 과제

- > 전국 단위로 시행되었기에 참여자의 접근성이 높았다. 참가자들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민속 놀이, 연극, 국악, 악기 만들기, 마임, 무용 등의 장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 > 각종 행사가 많은 5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는 만큼, 차별화된 질 좋은 프로그램과 사전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요청된다.



체험형

>>

#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장 소** 전국 54개 사립미술관  
**참 가** 9,276명  
**협 력**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주요 내용

> 사립 미술관이 주간 행사를 맞이해 특화된 장르와 풍부한 현대미술 콘텐츠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온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 2013년도엔 54개 미술관이 참여했다. 지역 주민은 각 미술관이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콘텐츠를 온 가족과 함께 접하는 등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뮤지엄 페스티벌  
참여 미술관 현황

순번	지역	전시명	프로그램명	날짜	요일	시간	장소
1	서울	디자인 기획전시 - 이머징 디자이너	금호미술관과 함께하는 의자 탐험!	5. 18 5. 25	토, 일 (총2회)	14:00~15:00 16:00~17:00	금호미술관
2	서울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우리동네 탐방탐방	5. 1~ 5. 31	매주 수, 금, 토	15:00~16:30(주중) 10:00~11:30(주말)	대림미술관
3	서울	Artist's Portfolio :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	나를 보여줘! 나만의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만들기	5. 4~ 5. 19	매주 토, 일	10:30~12:30 15:00~17:00	사비나미술관
4	서울	2013 상원미술관 특별 기획전 [왕골공예]	선조들의 지혜와 멋! 왕골공예 체험교실	5. 1~ 6. 1	매주 토	10:00~12:00 15:00~17:00	상원미술관
5	서울	-	Fantastic Portrait	5. 1~ 5. 31	상시	14:00~16:00(주중) 10:30~12:30(주말)	자하미술관
6	서울	Acts of Voicing	사물의 목소리 : 시선	5. 18 5. 19	토, 일 (총2회)	13:00~16:00	토탈미술관
7	서울	홍순태 사진전 (오늘도 서울을 걷는다)	옛 사진 속 그곳으로	5. 1~ 5. 19	매주 토· 일·공 휴일	11:30~13:00	한미 사진미술관
8	서울	2013 (재)한원미술관 상반기 기획그림전 "畫歌(화가)"	떠나요! 우리그림여행	5. 1~ 5. 31	매주 화, 목, 토, 일	15:00~16:00	(재)한원미술관

순번	지역	전시명	프로그램명	날짜	요일	시간	장소
9	서울	미술관 사파리3 : 헬로우 동굴의 비밀	헬로우뮤지움 미술관 사파리3 - 헬로우동굴의 비밀	5. 4~ 5. 26	매주 토, 일	10:30~18:00	헬로우뮤지움
10	서울	김환기 탄생 100주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작품 속 10가지 비밀 이야기	5. 1~ 5. 31	매주 수, 금, 토	16:00~17:30 10:30~12:00(토)	환기미술관
11	대전	함께하는 미술전	나의 전시회 - 만들고 전시하기	5. 1~ 5. 31	매주 토	13:00~17:00	남철 미술관
12	대전	한국미술특별전 - 風, 土, 火, 紙	바람을 담다 - 한지부채 손그림 체험	5. 1~ 5. 31	매주 일	11:00~12:00 16:00~17:00	선화기독교 미술관
13	광주	변재현 이상필 교수작품전	가족(家族)	5. 4~ 5. 25	매주 토	10:00~12:00	국윤미술관
14	광주	광주, K-Pop을 즐기다展	캐릭캐릭체인지 '꿈을 담은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5. 1~ 5. 31	상시	10:00~12:00	무등현대 미술관
15	광주	초록의 기원	"초록의 빛"	5. 4~ 5. 25	매주 토	10:00~12:00	우제길미술관
16	광주	문향(聞香)展	상상아! 놀자	5. 1~ 5. 31	매주 토	10:00~12:00	은암미술관
17	광주	춘설현 아집도 (春雪軒 雅集圖)	청출어람(靑出於藍)	5. 1~ 5. 31	매주 토	14:00~16:00	의재미술관
18	부산	실기실을 주목한다展	중이인형, 한지꽃나무	5. 1~ 5. 30	매주 수~일	11:00~12:00 14:00~15:00	김스타트필드
19	부산	'아름다운 문자 예술 - 서예 감상'	판본체로 이름표 만들기	5. 1~ 5. 25	매주 토	11:00~13:00 15:00~17:00	한광미술관
20	경기	자연속에서	자연속에서 조각과 핸드페인팅	5. 1~ 5. 31	매주 목, 금, 토	10:00~12:00 16:00~17:00	가산미술관
21	경기	숲, 숨 Woods, Breath	땃미술관 나무공방, 흙공방 워크샵	5. 4~ 5. 25	매주 토	13:00~16:00	땃미술관
22	경기	마가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形形色色 한지캐스팅	5. 18~ 5. 21	매주 토	14:00~16:30	마가미술관
23	경기	조각을 조각이게 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5. 3~ 5. 31	매주 화, 토	10:00~16:00	모란미술관
24	경기	색채야 놀자	색이 '꿈지락 꿈지락'	5. 1~ 5. 30	매주 토	14:00~16:00	서호미술관
25	경기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사계 - 작품감상과 병풍 만들기	5. 1~ 5. 30	매주 토	14:00~16:00	선바위미술관
26	경기	2013 해외작가 특별기획展 Chen, ruo bing _ 'Minimalism +'	단순의 미학 _ 미니멀리즘 +	5. 14~ 5. 31	매주 화~토	10:00~11:30	영은미술관

순번	지역	전시명	프로그램명	날짜	요일	시간	장소
27	경기	phantasmagoria II 판타스마고리아II, 이영미술관 봄맞이 상설전	상상의 미술관	5. 1~ 5. 31	매주 토, 일	14:00~16:00	이영미술관
28	경기	Life in 마북동 (마북동 삶 이야기)	'빛방울로 만드는 사진 속 세상' - 보케놀이(Bokeh play)	5. 1~ 5. 31	매주 수, 목, 금, 토	14:00~15:30	한국미술관
29	경기	김오성 조각 상설전 2013	꽃과 별과 조각 그리고 대리석	5. 1~ 5. 10꽃 5. 1~ 5. 31작품	매주 토	14:00~17:00	금구원아외 조각미술관
30	경기	청년작가지원전 - 김동인 나무로봇展	다산토요아카데미 - 일상 속의 한지 공예	5. 1~ 5. 31	매주 토	10:00~12:00	다산미술관
31	경기	김주연 개인전	그리고 놀고 짝고!	5. 1~ 5. 31	매주 수 토, 일	10:00~12:00 13:00~15:00	대담미술관
32	경기	최정미 조각전	情流場 - 정이 흐르는 미술관	5. 1~ 5. 30	매주 토	10:00~12:00	도화현미술관
33	경기	미술관 상설전 2013	네 꿈을 펼쳐라	5. 18 5. 22	토, 수 (총2회)	13:00~17:00	아천미술관
34	경기	염원으로 한 시대를 물들인 민화	민화야 놀자	5. 1~ 5. 30	매주 토	10:30~12:00	우중미술관
35	경기	우리 시대의 Hero	재미있는 놀이_ 일상 속 영웅 찾기	5. 1~ 5. 31	매주 토	14:00~15:30	잠월미술관
36	경기	진도의 묵(墨)백을 이어가는 지역작가 초대전. 장전미술관 도자기 소장전	한지부채에 도자기를 그리고 꾸미기	5. 1~ 5. 31	매주 토, 일	10:00~16:00	장전미술관
37	강원	석봉도자기미술관 상설전	가족과 함께 체험놀이	5. 1~ 5. 30	매주 금, 토	13:00~15:00	석봉도자기 미술관
38	강원	손자일작가 조각전, 마리오네트&피노키오 소장품전	하슬라아트월드와 함께하는 100가지 행복찾기!	5. 1~ 5. 31	매주 토, 일	14:00~16:00	하슬라미술관
39	충북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내 마음의 집에" 놀러오세요	5. 1~ 5. 31	매주 토, 일	14:00~16:00	쉐마미술관
40	충북	김을 개인전, 김태현 개인전	말을 가는 몸	5. 4~ 5. 31	매주 목, 금	14:30~16:00	스페이스뭉 미술관
41	충북	2013 미술관은 내 친구 (그림이 딱)展	뚝뚝뚝 땀이요!	5. 7~ 5. 31	매주 화, 토	15:00~17:00(주중) 10:00~12:00(주말)	신미술관
42	충남	김윤경 기획초대전 "일상속으로의 여행"	내가 만드는 미술관	5. 4~ 5. 31	매주 화, 수, 목, 토	16:00~18:00(주중) 10:00~12:00(주말)	당림미술관

순번	지역	전시명	프로그램명	날짜	요일	시간	장소
43	충남	수목드로잉	상상놀이터 - 꿈틀꿈틀 살아있는 드로잉	5. 1~ 5. 30	매주 월, 수, 목, 토	14:00~15:00(주중) 11:00~12:00(주말)	리각미술관
44	충남	서양화가 이영숙 '꽃으로여는 나의 나'	꽃으로 부르는 미술체험展	5. 1~ 5. 31	매주 수, 토	14:00~16:00	모산조형 미술관
45	충남	2012년 레지던스 참여작가전	"우리는 모두 예술가"	5. 18 5. 19	토, 일 (총2회)	10:00~17:00	아미미술관
46	충남	과거, 현재, 미래 - 미술이 들려주는 이야기	꿈지락, 만지락, 느낌표 미술체험 - 조물락 조물락 흙으로 빛은 내 얼굴	5. 5~ 6. 4	매주 화~일	10:00~18:00	임림미술관
47	경북	남홍, 거울앞에서다 (NamHong standing before the mirror)	콜라주로 표현한 핀 버튼	5. 1~ 5. 31	매주 토, 일	11:00~17:00	시안미술관
48	경북	"할매가 그릿니거?" II	신동미술관과 함께하는 '유지엄 힐링캠프'	5. 4~ 5. 25	매주 토	10:00~12:00	신동미술관
49	경북	한지와 빛의 조화 - 어린이 한지체험	닥섬유 구름꽃 만들기	5. 18 5. 19	토, 일 (총2회)	14:00~17:00	영담한지 미술관
50	경남	김철수 섬유미술 & 텍스타일 디자인展	신나는 패브릭 드로잉	5. 1~ 5. 31	매주 수, 토	14:00~16:00	대산미술관
51	경남	현대미술 '2013년 4-7악장'	「어기여차,음악과 미술과 함께」 마음을 전해요~!	5. 4~ 5. 25	매주 토	10:00~12:00	진주미술관
52	경남	천년의 신비 "옷칠과 나전으로 표현한현대예술"	천년의 신비 "옷칠 예술 이야기"	5. 1~ 5. 31	매주 화, 수, 일	10:00~11:30	통영옷칠 미술관
53	제주	Hi~돌하르방	Hi~돌하르방	5. 1~ 5. 31	매주 토	11:00~16:00	돌하르방공원
54	제주	비둘이 당근과 무 이야기 - 예쁜 내 얼굴로 문패 만들기		5. 1~ 5. 31	매주 화, 토	11:00~13:00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미술관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 [www.artmuseums.or.kr](http://www.artmuseums.or.kr)

### 성과

>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계층  
별로도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일반 시민 등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 03-4

>>>

## 서로에게, 말을 걸다

01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02 예술체험 원정대

포럼형

>>

##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4일(금)  
**장 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북, 대전 (총 6개 지역)  
**참 가** 196명  
**디 력 터** 안령, 강미영, 박종현, 임승한, 신운섭, 이효광, 예정원, 우선영

주요 내용

> 2012년 예술강사의 <발(發) 컨퍼런스>에 이어 예술강사들이 꾸민 두 번째 이야기 마당. 거주 지역별로 예술강사들이 모여 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정	지역	장소	프로그램 명	디렉터	참석인원(명)
5. 19(일) 11:00~13:00	서울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층 예술의메아리	예술강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즐고 있던 Artist를 깨우다!	안령 (공예)	25
5. 20(월) 18:00~20:00	대전	국제연극연구소 '휴'	오래된 시작 새로운 끝_ 예술강사의 웃을 입다!	강미영 (연극)	16
5. 21(화) 18:00~20:00	서울	Thinkcafe with Cafe the way	예술강사,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다!	박종현 (국악)	31
5. 22(수) 18:00~20:00	전주	전주 부채문화관	예술강사가 만든 행복한 교실	임승한 (공예)	20
5. 23(목) 19:00~21:00	인천	인천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예술 + 교육 = 예술교육?	신운섭 (연극)	33
5. 24(금) 18:00~20:00	서울	난지공원 캠핑장 D구역	불꽃을 피우자!_ 꿈은 이루어진다!	이효광 (디자인)	23
5. 24(금) 16:30~20:00	부산	카페 티티카카 키친	우리는 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예정원 (미술)	30
5. 24(금) 16:00~18:00	경기	고양 아람누리 3층 세미나실	내가 하는 예술교육이 예술이다!	우선영 (무용)	18

성과와 과제

- > 분야별 예술강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워크숍을 기획 운영하면서 교육자에서 기획자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을 통해 6개 지역의 예술강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예술교육 기획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도 새로운 예술 교육을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앞으로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기획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예술 교육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체험형

>>

# 예술체험 원정대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7일(월)  
**장 소**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10개교  
**참 가** 734명

주요 내용

> 예술강사들이 공연과 전시를 융합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소외 지역 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학교교육팀에서 추진한 '예술체험 원정대' 프로그램 중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하여 10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시	장소	프로그램 명	내용	참석인원(명)
5. 20(월) 09:00~12:00	매화초 (경북 울진)	우당탕탕 신나는 우리학교	연극 놀이 클레이로 탈 만들기	64
5. 21(화) 09:00~12:00	와룡초 (경북 안동)	(국악 / 연극)	〈돈도개비〉 연극 관람	107
5. 20(월) 10:00~12:30	외암초 (경남 함안)	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를 모티브로 한 〈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연극 감상 /	22
5. 21(화) 10:00~12:30	대병초 (경남 합천)	(공예 / 디자인 / 연극)	캐릭터와 함께 행복한 학교의 모델 제시 및 디자인 / 행복한 학교의 조각상 발표 및 앨리스와 함께 행복한 학교로 떠나기	54
5. 23(목) 09:00~11:30	화령초 (경북 상주)	화를 풀고, 화끈하게, 화목한	조각상 만들기를 통한 연극내용의 이해 연극(오해)관람을 통한 생각의 시간 /	120
5. 23(목) 14:00~16:30	아포초 (경북 김천)	소통~ 화통 (국악 / 공예 / 만화 / 연극)	토론을 통한 연극 속 상황 해결방법 찾기 / 찰흙 선물과 마음 편지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 나누기	150
5. 23(목) 09:00~12:00	남성현초 (경북 청도)	네 개의 방에서 보물을 찾아라	신뢰, 배려, 우정, 나눔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4개의 방을 돌며 게임을 통해 얻은 재료	32
5. 24(금) 09:00~12:00	칠서초 (경남 함안)	(영화 / 만화 / 연극)	(배경, 분장, 소품, 단어, 의상)를 이용해 팀별 이야기를 만들	65

5. 25(토) 09:30~12:00	함안중 (경남 함안)	4색 행복 비빔밥 (공예 / 디자인 / 체험활동 및 편지쓰기 / 내가 학교에서	내가 20살이 된다면? 라는 주제로 60
5. 27(월) 10:00~12:30	지족초 (경남 남해)	영화 / 만화) 스토리텔링 하여 넣은 후 서로의 생각을 읽고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함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은? 4컷 프레임에 60

성과와 과제

- > 감성으로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번 프로그램은 소외 지역 아이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술강사들의 좋은 팀워크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냈다.
- >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특별 프로그램 형식으로 프로그램의 횟수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03-5

>>>

## 세상에게, 말을 걸다

- 01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시장과 사람들,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 02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금천 남문시장
- 03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신당 중앙시장

체험형

>>

##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시장과 사람들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장 소** 가경터미널시장 내 다정다방, 시장 점포, 시장길  
**참 가** 639명  
**디 력 터** 시장문화예술공동체 있소

주요 내용

> 시장 상인들이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등 인문학 강의에 참가해 글과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나눈 프로그램. 시장 상인들은 점포에 자신이 쓴 글을 전시하고, 사연을 직접 투고해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등 상인과 상인, 상인과 고객, 고객과 고객 간의 소통을 이끌어낸 프로그램이었다.

일시	구분	내용	강사
5. 7(화) 14:00~16:00	시장, 사람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소개	김영범 (시인)
5. 14(화) 14:00~16:00	초청강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에 대해 공감해보고, 사례를 통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효과를 설명	권희동 (문화테라피스트·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5. 20(월) 5. 22(수) 5. 24(금) 14:00~16:00	행복한간판 전시	각 점포의 글 주제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글을 써서 시장 스토리텔링에 관련한 자료 조사	김영범 (시인)
5. 21(화) 5. 23(목) 13:00~15:00	시장통 라디오 결절이 방송	시장상인이 라디오 방송 게스트로 출연하여 자신의 행복한 간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김영범, 이광진, 이성희 (연극인· 결절이 방송국 DJ)
5. 25(토) 15:00~17:00	결절이공개방송	행사의 의미 및 결과를 시장 고객들에게 홍보, 참여 상인과의 좌담회	이성희 (연극인· 결절이 방송국 DJ)
5.26(일)이후	시장 사람들 소책자 발간	사업 추진 과정의 기록 참가자 원고 수록 발급된 스토리텔링 결과물 정리 수록 및 발간	

성과와 과제

- >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였다.
- > 문화예술을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는 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지역 단체와의 연계 방안이 요청되었다.

체험형

>>

#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매회 10:30~12:30  
 장 소 남문시장 내  
 참 가 28명  
 디 력 터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주요 내용

- > 시장 상인이 만화와 손바느질 수업에 참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해본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시장 상인들이 일주일간 제작한 물건을 시장 내 전시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구분	내용
꿈다방	만화 만들기	'우리자신, 우리가족 사각인형 만들기, 우리가족 소원함 만들기' 라는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워크숍
남문시장조합 사무실	손바느질	열린 수업 : 사연이 담긴 옷가지나 자투리 천 이용하여 미니가방, 동전지갑 제작 체험 워크숍 5회 수업 :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바탕으로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티셔츠에 이야기를 담아보는 워크숍

성과와 과제

- > 상인들은 내면에 숨겨진 예술적 감성과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숨겨진 재능과 개성을 각자의 작품으로 표현해봄으로써 생활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획과 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킬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체험형

>>

#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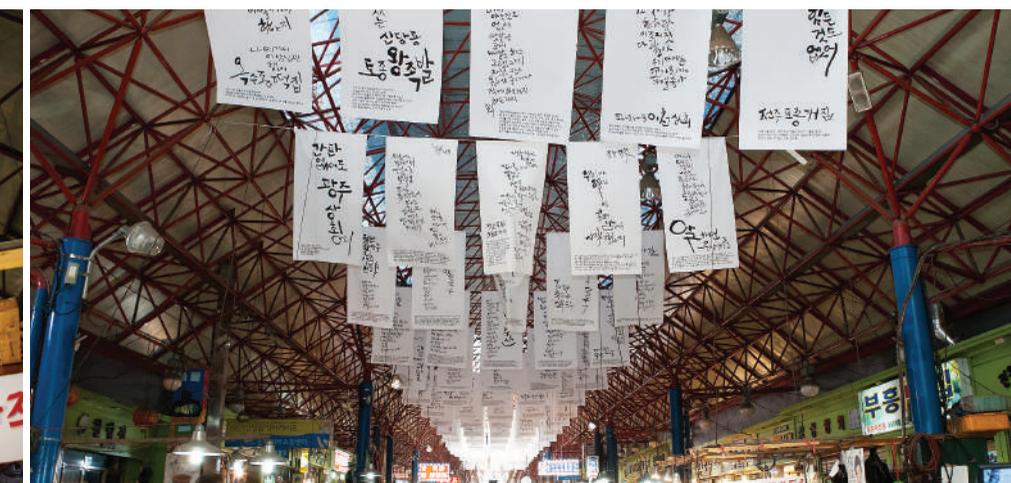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장 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중앙시장  
 참 가 1,333명  
 디 력 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주요 내용

- > 중앙시장 출신 작가가 시장 상인 50명의 캐릭터를 담아 쓴 수필 50편과 공공 미술가들이 상인 50명을 인터뷰해 담아낸 수필 50편을 캘리그래피 설치 작품으로 제작되어 시장 천장 구조물에 전시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중앙시장 해인상회의 자녀인 임주영 작가와 최선 외 2명의 입주 미술가가 진행했다.
- > 100편의 수필은 중앙시장의 노점상과 상점 상인의 자화상을 담고 있으며, 객관적인 묘사와 더불어 글쓰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들을 관찰한 주관적 시선 등이 포함되어, 짧지만 의미 있는 글로 표현되었다.

성과와 과제

- > 재래시장 상인들은 에세이의 소재이자 주제가 되는 과정을 겪으며 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물이 시장 공간에 전시되는 경험을 통해 공공 예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상인과 지역 주민의 소통에도 큰 도움을 주었으며, 문화예술의 의미가 구체적인 삶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향후 다양한 생활 공동체로 프로그램을 확장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03-6

>>>

## 꿈에게, 말을 걸다

01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02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공연형

>>

##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5일(토) (CD 제작 기간: 4. 8~5. 11)  
**장 소** 서울 광화문광장  
**참 가** 2,000명  
**디렉터** 레이블 키친

주요 내용

> 다양한 음악가들의 CD 제작과 판매, 공연을 지원한 프로젝트. 상업 CD 제작이 어려운 생활 예술가 20여 명에게 녹음 작업과 CD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밴드 명	장르	밴드 명	장르
Lil marvel	비트박스	솔가	노래와 보컬
군포 플루트 앙상블 (K.FE)	관악(플루트)앙상블	어느새	복고 음악
알로하	우크렐레 앙상블	꽃가랑 (꽃이있는강)	오카리나 연주
DAMIAN	랩	슬아연	어쿠스틱
길바닥로망	어쿠스틱	조용성, 박태경, 신순호	하모니카, 기타 연주
DJ Chadoll	블랙뮤직	E-goon	아코디언 연주
나비다	보사노바	실록밴드	아코디언 연주
비건웨이브 (Vegan Wave)	아카펠라	박주영	기타연주, 보컬
프리마베라	브라질 음악	오주연	트럼펫 연주
세남자	힙합	성연영	해금병창

성과와 과제

> 기존의 소외 계층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일반인의 생활에 파고드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

> 레코딩에 전문 지식이 없는 예술가들이기에 예상보다 녹음 작업이 길어졌고 시간 관리나 장소 섭외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밴드 코디네이터를 두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공연형

>>

##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일 시** 2013년 5월 19일(일)~5월 24일(금)  
**장 소** 두타쇼핑몰 광장 (5. 19), 광화문 중앙광장 (5. 21~24)  
**참 가** 2,500명  
**디 력 터** 신촌콘서트

주요 내용

> 힙합·소울·어쿠스틱·타악기·연주·탭댄스·퍼포먼스·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시민과 편안히 대화하며 펼친, 신나고 즐거운 거리공연. 손수레에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프로그램 북과 공연 팸플릿을 싣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 일상에서 벌어진 축제 한마당을 만들었다.

일시	참여팀			
5월 19일(일) 13:00~15:30	세남자 (힙합) (기타)/ 메종드제이 (퍼포먼스)	사나운복숭아와친구들 (미술)	We R Magic (미술)	세정 (건반) 어느새 (기타, 잼배, 피리, 아코디언)
5월 21일(화) 12:00~14:30	세남자 (힙합) (잼배, 기타)	기타쿠스 (미술)	We R Magic (미술)	솔가 (기타) 사나운복숭아와친구들 (기타)/ 메종드제이 (퍼포먼스)
5월 22일(수) 12:00~14:30	세남자 (힙합) (잼배, 기타)	기타쿠스 (미술)	We R Magic (미술)	솔가 (기타) 어느새 (기타, 잼배, 피리, 아코디언)
5월 23일(목) 12:00~14:30	세정 (건반) (건반, 기타)	사람또사람 (미술)	We R Magic (미술)	나잇어클락 (기타) 사나운복숭아와친구들 (기타)/ 메종드제이 (퍼포먼스)
5월 24일(금) 14:00~16:30	세정 (건반) 기타, 잼배, 멜로디언)	요술당나귀 (베이스, (미술)	사람또사람 (미술)	나잇어클락 (기타) 어느새 (기타, 잼배, 피리, 아코디언)

성과와 과제

> 다양한 장르의 공연 팀들이 관객과 호흡하며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의 취지를 '음악'으로 말을 걸고 소통을 시도하였다.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할 때는 시간과 장소 선정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정한다면 관객 참여도와 호응도를 제고할 수 있다.



# 03-7



## 내일에게, 말을 걸다

- 01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 02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 03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템아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 04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 05 폐막식

포럼형



##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일 시 2013년 5월 22일(수) 14:00~17:00  
장 소 스페이스 노아  
참 가 60명  
디 력 터 스톤앤워터

주요 내용

>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국내 거주 외국 입주 작가들이 나눈 토크쇼. 외국 예술가의 눈에 비친 한국 문화예술의 특징과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토론되었다.

모더레이터 Moderator

김종길 (미술평론가·현 경기문화재단 책임 연구원, 전 경기도 미술관 학예팀장)

참여 작가

이름	국가	작품영역	주요 경력 & 작업 소개
에릭 스콘 넬슨 Eric Scott Nelson	미국	설치행위예술가	2007년부터 서울에서 활동 언어를 기본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인생의 아름다움과 부조리를 표현
치카히로 하나무라 Chikahiro Hanamura	일본	예술가·대지 디자이너	오사카 공립대학 건축과 부교수 2012년 DSA디자인상 수상(안개가 걷힌 후 빛나는 봄)
헨토크&나드 Chaja Hertog and Nir Nadler	네덜란드	행위예술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듀오 작가 현재 서울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활동. 관객이 보고 상상하는 것의 인식에 도전하며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의 여행을 유도
맷 개일 Matt Gale (Matthew Jeremy Gale)	미국	다원예술작가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 매체를 다룸)	2004년 오레곤 토트랜드에서 미술대학 졸업 후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작품활동

### 성과와 과제

- > 외국 예술가의 시각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
- > 입주 작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예술가들을 섭외해 관점의 폭을 넓히고 프로그램의 지속성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단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포럼형

>>

##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일 시 2013년 5월 22일(수) 10:00~17: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 가 300명

### 주요 내용

- > 한·중·일 문화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3국의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포럼으로, 나라별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흐름과 특징들을 공유한 시간이었다.
- >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성 함양, 일반 시민의 문화적 삶 향유와 문화 공동체 형성,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사업 우수사례 소개가 진행되었고, 3국의 미래지향적 공동 과제 협력 방안도 토론되었다.



시간	상세내용
10:00~10:20	인사말씀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조현재 (Cho HyunJae)
10:20~11:50	1부 : 한중일 문화예술교육의 위치와 초점 (Locus&Focus)
	중국 리 샤오펑 (Li Shaopeng) 중국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아시아부처 조사연구원
	일본 사토 토루 (Sato Toru) 문화청 장관관장 국제과장
	한국 김태훈 (Kim Taehoon)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11:50~13:30	오찬
13:30~15:45	2부 :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정책 우수 사례 (Best Practice)
주제 1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우수 사례
	일본 : 츠츄미 야스히코 (Tsumumi Yasuhiko) NPO '어린이와 예술가의 만남' 디렉터
	한국 : 고봄이 (Go Bomi)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대표
주제 2	일반시민의 문화적 삶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 우수 사례
	중국 : 황 향궈엔 (Huang Hangjuan) 절강성예술직업학원 당위원회 부비서
	일본 : 요시노 사츠키 (Yoshino Satsuki) 아이치 대학 사회인문학부 부교수
주제 3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을 위한 정책 우수 사례 등
	한국 : 정연희 (Jung Yeonhe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중국 : 셴 쥘쥘 (Shen Jun Jun) 련운항시 예술학교장
15:45~16:00	휴식시간
16:00~17:00	3부 : 토론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통과제와 협력방안"
중국	황 향궈엔 (Huang Hangjuan) 절강성예술직업학원 당위원회 부비서 셴 쥘쥘 (Shen Jun Jun) 련운항시 예술학교장
일본	츠츄미 야스히코 (Tsumumi Yasuhiko) NPO '어린이와 예술가의 만남' 디렉터 요시노 사츠키 (Yoshino Satsuki) 아이치 대학 사회인문학부 부교수
한국	정문성 (Jeong Moonseong)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연희 (Jung Yeonhe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성과와 과제

- >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제로 3국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준비 단계부터 정책과 사례 발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는 중평이다. 이로써 3국의 특성과 장점을 비교 분석하는 틀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지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포럼이었다.
- > 더욱 안정적인 포럼의 진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국제회의 인 만큼, 외국어의 상호 번역과 통역 준비 기간이 적어도 2주 이상 되어야 한다는 평가였다.



포럼형

>>

#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템마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일 시 2013년 5월 22일(수) 14:00~17:00 / 2013년 5월 23일(목) 13:00~17:00  
장 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대전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참 가 345명

주요 내용

> '엘 시스템마'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나누는 국제 포럼. 엘 시스템마 교육의 특징인 인성 변화, 질서 습득, 공동체 의식 개발 등을 주제로 효과적인 합주 교육 방법과 합주 교육이 사회성뿐 아니라 아동의 음악 전문성도 계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공유한 시간이었다.

5월 22일(수)

시간	구분	강의내용
14:00~15:00	세션 1	<b>Sistema New Brunswick 이야기</b> - 시스템마가 뉴브런스윅에 가져온 영향 - 뉴브런스윅의 목표 - 오케스트라 교육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교육사례 - 캐나다 New Brunswick의 단계적 발전방향 (2010~2014) - 오케스트라 교육자에게 필요한 역량
15:00~15:40	세션 2	<b>Sistema New Brunswick의 주요 교수법 소개</b> - 커리큘럼 소개 (노래부르기, 솔페지오, 반복학습, 음악용어 등) - 합주교육 방법, 오디션 및 악보읽기대회 등 프로그램 소개 - 효과성 연구 결과 (부모님, 학교교사)
15:40~16:00		휴식
16:00~17:00	세션 3	<b>패널식 토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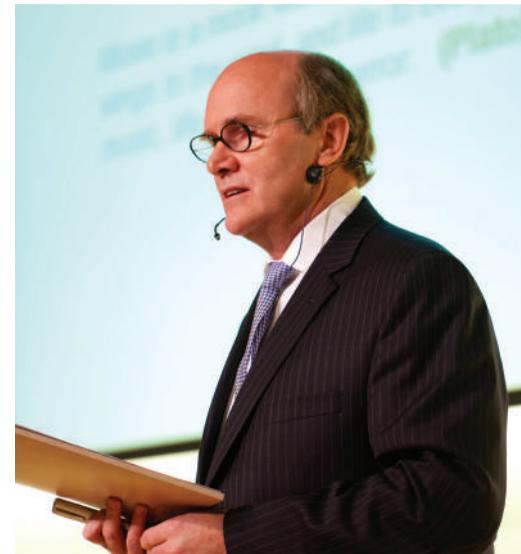
5월 23일(목)

시간	구분	강의내용
13:00-13:45	세션 1	<b>Sistema New Brunswick 소개</b> <b>캐나다 New Brunswick의 주요 교수법 소개</b> - 커리큘럼 소개 (노래부르기, 솔페지오, 반복학습, 음악용어 등) - 합주교육의 형태 및 오디션, 악보읽기대회 소개 - 효과성 연구 (부모님, 학교교사)
13:45-14:00		휴식
14:00-16:30	세션 3	<b>시범 수업</b> - 신규 바이올린 지도 - 바이올린 파트 리허설 - 현악 파트 리허설 - 전체연습 리허설
16:30-17:00	세션 4	<b>질의응답 및 토론</b>

성과와 과제

> 일반인 대상의 워크숍에 많은 관람객이 참석하여 엘 시스템마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내용을 기대하는 참가자들이 많아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과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 마련이 요청된다. 또한, 예정했던 강연 시간보다 길어져 중간 이탈자가 발생하여, 향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시간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포럼형

>>

#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13:00~18:30  
장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참 가 300명

주요 내용

- >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정책 포럼. 주제에 따라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토론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지역, 학계, 공공 영역, 국제 사회, 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 의제가 다뤄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변화,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대학에서의 변화,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 교육청·학교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시간	발표주제	사회·발제·토론자	
12:30~13:00	행사 소개 및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회사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문화예술교육 영상		
<b>1부</b>	<b>문화예술교육, 10년을 되돌아보다</b>	사회자 : 김종석 (용인대학교 뮤지컬연극학과 교수)	
13:30~15:10	문화예술교육, 성장과 변화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이상훈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전고필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청년사업팀장) 문 영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교수) 김귀배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 팀장) 임수준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15:10~15:30	휴식시간	
	<b>2부</b>	<b>문화예술교육, 현재를 바라보다</b>	사회자 :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성과와 과제

- >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반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포럼이었다. 과거 세션에서는 10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되짚어보고, 현재와 미래 세션에서는 새 정부 문화 정책과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기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더욱 의미 있는 포럼의 진행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주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15:30~17:00	문화예술교육, 재도약을 위한 열쇠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새정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망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윤현옥 (aec비타민 대표) 최현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b>Session3</b>	<b>문화예술교육, 미래를 전망하다</b>	사회자 :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17:00~18:30	미래 사회 변화와 문화예술교육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승호 (서울시교육청 문예체도서관팀 장학관)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경제적 센터장)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18:30~	다과 및 네트워킹



## 폐막식

>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와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폐막식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주요 내용

**일 시** 2013년 5월 25일(토) 17:00~18:00  
**장 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참 가** 119명  
**디 력 터** (주)비타민컴

> 전국 각지에 진행된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정리한 공식 폐막식.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를 치하하고 시상하는 식순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간	구분	내용
17:00~17:03	오프닝 영상	
17:03~17:10	축사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7:10~17:20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메시지	이승희 (배영초등학교 교장_예술꽃씨앗학교) 이복계 (2012 청춘연극제 참여 어르신)
17:20~17:25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17:25~17:35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성과 공유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17:35~17:50	사업 관계자 시상식	
17:50~18:05	축하 공연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참여팀 : '프리마베라' '세남자'
18:05~19:00	다과 및 네트워킹	

### 성과와 과제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04

>>

## 홍보

04\_1 언론 홍보

04\_2 주요 보도 성과

>>

04

01. 행사 개괄 >>

# 04-1 언론 홍보

개요

- > 기간 2013년 4월 29일(월)~6월 4일(화)
- > 홍보 실적 310건

매체별 게재 현황

항목	방송	일간지	온라인	총계
게재기사 수	10	145	155	310

- ※ 일간지 : 주요 일간지, 지방지, 경제지 등의 지면
- ※ 방송 : TV, 케이블, 종합 편성 채널 모두 포함
- ※ 온라인 : 주요 일간지, 방송 온라인, 통신사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 기사
- ※ 지면과 온라인 모두 게재 시 1건 처리
- ※ 동일한 내용의 기사의 경우 타이틀이 다른 기사는 별도의 건으로 처리

시기별 게재 현황

항목	사전	주간	사후	총계
방송	2	6	2	10
심층 취재	2	3	1	6
일반취재 및 온라인	34	252	8	294
합계	38	261	11	310

주요 내용

- > 홍보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매체 홍보에 주력하고, 주간 행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실시간 현장 소식으로 전하는 등 SNS 활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성과와 과제

- > 언론보도는 2012년도에 비해 보도 건수는 많았으나 단순보도 비중이 높고, 결과물 중심의 홍보에 집중하다보니 개별 프로그램의 의미와 화제 인물 등의 사연 발굴이 부족하였다. 또한 서울 중심부 프로그램 홍보에 치중하여 지역 프로그램은 언론 노출이 매우 취약하였다.
- > 매해 진행되는 것을 감안, 주간 행사만을 위한 단기적인 홍보가 아닌 주간 행사 사전에 주제 또는 사업별 특성 등 심도 있게 취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각 프로그램별 기획 단계에서 부터 진행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활용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01. 행사 개괄 >>

# 04-2 주요 보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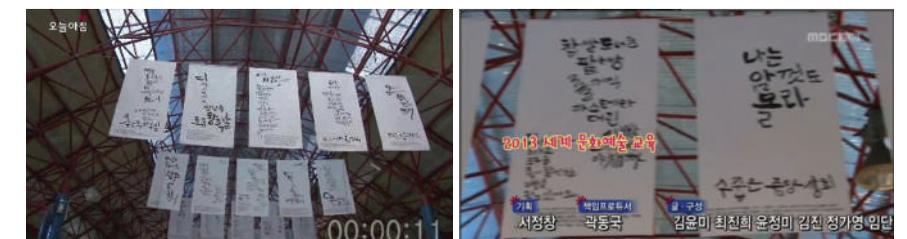
EBS

방영일 | 2013. 5. 22(수)



MBC

방영일 | 2013. 5. 23(목)



아리랑TV\_코리아투데이

방영일 | 2013. 5. 21(화)



MBC\_아침 뉴스

방영일 | 2013. 5. 25(토)



더위 식혀줄 명작 공연



부산KBS\_9시 뉴스

방영일 | 2013. 5. 25(토)



체험 행사 '풍성'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체험 행사'  
오늘 오우, 진포동 공리마루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체험 행사'  
오늘 오우, 진포동 공리마루



춘천MBC\_강원 365

방영일 | 2013. 6. 3(월)



예술 활동이 즐거워요~



이호석 장효윤



희습활동이 즐거워요



김신록

경향신문

계재일 | 2013. 5. 2(목)

경향신문

위기 극복 '나눔 문화'에서 길을 찾자

김봉준 화가, 신화미술관장

문화는 삶의 양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변형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원형문화가 해체되고 표준문화가 주를 이루는 주권적 도양상이 이어진다. 원형문화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사회는 기쁘고 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변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

제가 모락, 원형, 전통종속의 문화 중심을 집착하고 전일적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관철하려 하니 우리의 일상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문화 위기를 해소할 전략은 문화·예술적 방식만이 아닌 정치·경제·사회가 함께 역동적인 선순환에 합류하는 데 있다. 사명과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 원인이 가능하다. 우리의 원형문화인 배려의 돌봄

을 부활시켜야 한다. 우리 전통에서 다시 배운 나눔은 얼마든지 있다. 두레와 풍장, 새해에 하는 지신밟기와 서화나눔, 그림과 글 내림의 임시모화(臨時模畵), 진지초대 먹놀리기, 공동체 놀이, 나눔예술의 총화 달놀이, 감성나눔 공유마당 등과 조신 후기 실학자들의 유제(遺齋) 정신도 있다. 오는 19-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에 참여하면 새 나부터 나눔을 실천하려 한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해왔던 일을 붓그늘 그리주기도 나눔활동이다. 그동안 500여명의 시민이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보면 고백을 통해 외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예술은 소통의 도구이고 나눔의 방식임을 새삼 실감한다. 팍팍할수록 서로간의 위안과 협동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확인한 것이다. 나눔은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다. 나눔이 우선하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배려의 나눔을 먼저 하지 않는 소통은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일 뿐이다. 나눔문화, 소통문화, 자유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한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2013년 05월 02일  
29면 (오피니언)

(12.9\*9.9)cm

서울신문

계재일 | 2013. 5. 9(목)

서울신문

"한글의 과학성·아름다움을 남기고 싶어"

독보적 캘리그래퍼 김병인씨

"엄마가 뿔났다" 등 잇따라 흥행 혼민정음해례본 달도록 읽어 "한글, 안보이는 것도 상형화 그 과학성 논문으로 남겨"

"스승이 날이 매 5월 15일인 줄 아세요? 세종대왕의 생일이에요. 한국인의 가장 큰 스승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라는 이야기죠." 김병인 (사진·51) 캘리그래퍼는 한글 보글씨에 '꽃'인 시립달개 서수업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붓글씨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혼민정음해례본도 달도록 읽었다. 그는 "한글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리도 상형했다"면서 생동 기운을 끌어온다. 잘의 날거로움, 뽕의 따듯함, 꽃의 아름다움, 나는 자유로움, 숲의 능직함 등등. 상업적인 한글 캘리그래퍼로써 활동한 지 13년 그의 글씨는 이제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참어슬'과 '산사촌'.

독보적 캘리그래퍼 김병인씨

"엄마가 뿔났다" 등 잇따라 흥행 혼민정음해례본 달도록 읽어 "한글, 안보이는 것도 상형화 그 과학성 논문으로 남겨"

"꽃무늬, '아침햇살' 등을 시작으로 '복도', 송래분 기법'과 '능평한 도수 그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등 생수가 없다. "TV드라마 타이틀인 '엄마가 뿔났다'에서 '뿔'자를 황소의 우뿔 솟은 뿔처럼 그래서 기억에 남게 남기도 했고요. 화오 라는 숲은 마치 시면 불같이 일어난 숲이라는 이미지를 담아서 쓴 글씨



러서 숲꾼들이 좋아합니다"고 했다. 그가 붓글씨를 만난 것은 경남 함천군 응주면 옹호초등학교 6

학년 때다. '담임선생님이' 서예 반으로 들어오는데, 그림 공부를 싫어하게 해주마라"고 해서도 그랬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형태적으로 상형문자로서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글로 남기고 싶었다"는 김씨는 "한글 글꼴의 의미적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붓글씨의 자유로움을 소재로 오는 21일 고양인경남 함천 응주초등학교에서 4-5학년과 한글, 글씨로 놀자"라는 주제로, '2013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의 일환이다. 그는 "서울 혼민정음에서 붓글씨를 만나고 제게 이렇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글·사진 문소영 기자

2013년 05월 09일  
27면 (인물)

(12.9\*12.3)cm

메트로

계재일 | 2013. 5. 22(수)

metro



랩 음악 듣는 세종대왕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프로그램에 참가한 뮤지션들이 랩 실력을 뽐내고 있다.

2013년 05월 22일  
02면 (종합)

(15.4\*9.6)cm



세계일보

게재일 | 2013. 5. 22(수)

세계일보

2013년 05월 22일  
13면 (사회)



**대왕님도 흥겹게**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펼치는 '광화문의 거리악사들'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 공연은 2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된다. 김범준 기자

소년한국일보

게재일 | 2013. 5. 15(수)

소년한국일보

2013년 05월 15일  
02면 (종합)



지난해 '세계 문화 예술 교육 주간' 행사 모습.

# 그림·음악·공연이 '말을 걸다'

19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이 문화 예술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9~25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2013 세계 문화 예술 교육 주간' 행사를 차린다. 해마다 5월 넷째 주에 개최되는 문화·예술 교육 주간은 2011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유네스코 총회에서 공식 기념 주간으로 지정됐다. 올해에는 '문화 예술 교육, 말을 걸다'를 주제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34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차려진다.

19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대전 청소년문화마당, 춘천교대에 사는 어린이들이 몸으로 예술을 즐

19~25일, '2013 세계 문화 예술 교육 주간' 몸으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 전국서 펼쳐져

길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워크숍 체험 박람회'가 펼쳐진다. 여기서는 '나무조각 모자이크'·'악기로 동물 되기' 등 10여 가지의 예술 교육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 박람회는 22일 광주 아시아문화마루, 25일 서울 광화문광장·부산 공리마루에서도 잇따라 마련된다.

전국의 사립 미술관 54곳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9일 서울 사비나미술관은 '나만의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서울 자하미술관은 31일까지 나

만의 자화상 그리기를 진행한다. 또 25일에는 16개 시·도별 지역 문화·예술 기관에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가 문을 연다. 연극 놀이부터 강강술래·탈춤 등 전통 놀이, 클래식 연주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밖에 예술 강사가 도서 벽지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예술 체험 원정대'도 20~27일 진행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은 문화·예술 교육 주간 공식 누리집(www.artweek.kr)에서 안내 중이다.

/인용주기자 helloan@snhk.co.kr

(15.4\*16.2)cm

경기일보

게재일 | 2013. 5. 23(목)

경기일보

2013년 05월 23일  
15면 (문화)

## 군포 시민의 얼굴에 담긴 소망

시민들의 얼굴과 소망을 전업 화가가 직접 붓으로 담은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군포문화재단이 올 초 창립 후 처음으로 마련한 기획전 '마을아리랑'이 그것이다.



군포문화재단은 오는 24일까지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2013 세계문화 예술교육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기획전 '마을아리랑'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공동 주최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 예술교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2011년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주를 세계문화 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 지난해 주도로 첫 행사를 개최

한 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 흐름과 함께 하는 이 전시는 한 마을의 구성원을 중심에 세운 것이 특징이다.

재단 측은 앞서 '김봉준 작가와 함께 하는 나의 소망, 마을'을 주제로 내걸고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각 인물 사진과 소망글을 공모했다.

이어 참여 시민 총 99인의 소망글과 얼굴을 김봉준 작가가 붓으로 그리고 써서 완성작을 전시하는 것이다. 참여작가 김봉준은 화가이자 조각가로 오랜미래신화미술관 관장(사)오랜미래문화연구회 이사장, (사)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그가 먹으로 그린 시민의 얼굴과 글귀들에서는 짙 짙한 일상에서도 희망을 그리며 더 아름다운 마을로 가워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염원하는 힘이 느껴진다.

박찬을 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은 "일상 속에서 보통사람들과 예술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마을 공동체의 꿈을 그려보고자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관련 이 전시는 25~26일 이틀간 서울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이어지며 행사 후 참여시민에게 해당 작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031)390-3515

류설이기자 rsl1@kyeonggi.com

(18.4\*16.7)cm



군포문화재단 '마을아리랑' 김봉준 작가, 붓그림 특별전 마을공동체의 꿈 예술로 소통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05

>>

## 참고 자료

- 05\_1 연설 및 발표 자료
  - 개막식 개막인사
  - 개막식 개막선언
  - 개막식 강연 01
  - 개막식 강연 02
  - 폐막식 축사
  - 폐막식
  - 폐막식 현장의 메시지 01
  - 폐막식 현장의 메시지 02
- 05\_2 참가자 소감
- 05\_3 홍보 제작물

>>

05

## 05-1 연설 및 발표 자료

### 개막식 개막인사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육주간의 주제는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입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소통과 공감의 시작이라 봅니다. 문화예술과 교육이 서로 교류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올해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8년이 됩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전문예술강사와 함께 배우며 예술꽃 씨앗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즐거움을 느끼고, '토요문화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직장인'들은 예술동호회 활동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교정시설 재소자'들도 예술교육을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예술강사,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단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융성'의 첫걸음은 바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리국민 개개인이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행복의 시대가 되도록 예술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예술강사 여러분의 처우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복지에도 더 큰 관심을 쏟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참여와 지지를, 때로는 아낌없는 고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막식 개막선언

/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재은 원장입니다.

저는,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5월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에서의 감동과 여운을 올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올해 주간 행사는 일상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경험했던 감동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힘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상실감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우뚝 일어서게끔 하는 놀라운 손길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문화예술교육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그 개막을 선언 합니다!

## 개막식 강연 01 / 김영하 (소설가)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로 태어나서 예술가로 살면 좋지만 예술가로 태어나지만 곧 학생이나 노동자로 훈육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술가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집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TV보며 따라 춤추고, 크레파스를 칠하고, 도화지가 아닌 다른 곳에도 칠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예술을 합니다.

아이들은 글을 몰라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동굴에 비가 와서 갇혀 있을 때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예술과 인간의 본성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배우지 않아도 병원 다녀와서 병원 역할을 따라 하거나 부모의 모습 보며 따라 합니다. 남의 역할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대부분 어머니들은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은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것과 경험하지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어낸다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는 놀라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슈퍼에 가서 뿌로로를 만났다고 한다거나 외계인을 만났다고 말을 지어 낼 때 엄마들이 놀래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되었니?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말이 되는 한 괜찮은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고 자가당착에 빠져 이야기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문장을 던져놓고 이야기를 말이 되게 이어가고 이어가는 일은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전문적인 작가들도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책임질 수 없는 문장 하나를 던져놓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는 일을 합니다.

현대문학의 대가라고 하는 이분 아시겠죠. 현대문학의 고전의 첫 문장 프란치 카프카의 '변신'의 첫 머리입니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소설들과 전혀 다른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던져놓고 말이 되도록 이어가고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소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프란치 카프카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의 아버지가 프란치 카프카 보고 야단을 쳤다면, 그 다음 문장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롤랑바르트는 플로베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타브 플로베르는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에로스(사랑)를 연결한 것이다. 즉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의 연결이 곧 소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가들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경험했지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즐거운 예술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예술을 즐겨워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고 레슨을 받게 되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을 때, 누나랑 젓가락 행진곡을 칠 때는 재미있지만, 선생님과 레슨을 하게 되면 계속 도돌이표로 연습이 되면 그대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점수로 책정되는 것은 예술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된다는 것은 다른 형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학생으로 훈육되는 것은 그의 기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훈련 받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 최재천 교수님께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행동이 다른 것은 강의행동이 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하얀 간 아이들 성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고, 어렸을 때 예술가로 태어났지만 그 어린 예술가를 내면에 깊이 감추고 문명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중에 직장인이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예술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심지어 저 같은 예술가도 일로 예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프랑소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하면 피곤해지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예술강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림을 가르치고 나면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1조는 40점을 그리고, 2조는 40점을 그리고 제출하라고 하면 벌써부터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술이 일이 되면 즐거운 단계가 아닌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린 예술가들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사람들의 억눌린 어린 예술가가 나타날 때 예술적인 충동은 음습하게 나타납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으로 변모하죠. 악성루머로 만들어 가고 음모이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들 가서 직원들 노래 못 부르게 상사가 호텔캘리포니아와 같은 긴 노래를 불러, 직원들을 노래를 못 부르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분들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술을 하려는 마음과 충동이 억눌렸을 때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마음대로 예술하고 무엇을 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소설가가 되기 전에는 남의 소설에 대해 아주 혹독한 비

평을 잘 했습니다. 잘 쓴 것보다 못 쓴 것만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남의 작품에 대해 매우 너그러워집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시기심은 나쁜 감정인데, 원초적인 감정입니다만,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직장과 학교를 다니게 되면 예술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로 생각하고 살게 되죠.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자면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도 경북공으로 사생대회를 갔는데 검은색이 너무 맘에 들어서 검정색으로 막 칠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뒤에서 지켜보시고 영하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니?라는 물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두운 밤에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 있다고 돌려댔더니 영하는 그림에는 재능이 없지만 스토리텔링에는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끌고 나와서 -이상하게 사생대회에 여학생도 많았는데- 여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미술에 관련해서 음습한 마음을 가지고 음습한 스토리를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저를 혹독하게 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북공이 있고 낮인데 밤을 그리는 저를 탄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유럽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다른 점은 저처럼 어설픈 제목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제목을 Untitled 라고 명칭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혼났는데 그들은 현대미술이라고 칭하니깐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 이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말을 잘 붙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파블로 피카소 라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황소'라고 붙였습니다. 마르셀 뒤샹 같은 경우에는 번기를 가지고 '샘'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더라구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피카소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라고 말했더군요. 이걸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 혼났고 그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교수로 잠깐 재직했을 때 학생들과 여러 가지 글 쓰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 안된 강의실에 빙 둘러 앉아 글을 씁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일부러 종이로 쓰게 하였습니다. 제가 쓰라는 것을 바로 쓰게 하였습니다. 20~30분 정도 쓰게 됩니다. 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쓰라고 했고, 규칙이 미친 듯이 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건돌리기처럼 2분, 5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첫 문장을 생각하라고 하고 빨리 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저항하지만 몇 분이 지나면 순간적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학생들을 글을 받아보면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써오라고 하는 글보다 밀도가 더 높은 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오랫동안 어린 예술가들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악마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술을 하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방해하기 시작합

니다. 옛날에 거절 받은 기억 "너 글 이상하잖아!" "너 그림 이상하게 그리잖아" 그렇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나 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거나 연극 활동을 하러 가려고 할 때도 우리 안의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수만 가지 악마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가 예술가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유 10가지 모아 예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절실한 1가지가 있는 것 때문에 예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과제를 하라고 시키면 인터넷을 켜요. 들어가면 검색창에 연예인 기사나 쇼핑을 하고 있어요. 같이 글을 쓸 때 큰 에너지와 시너지가 생기기도 하지요. 내면의 악마들을 겨우 잠재우고 우리만의 예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연극, 합창 등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외부의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부모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친구와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친구, 동료가 아니고 악마가 잠시 변신해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마법의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건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역동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미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 마법의 질문은 외부의 악마로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주저 안합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실용성을 담보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술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용성으로 자기 배우자, 상사와 친구를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예술은 무용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돈벌이가 안될 때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저도 돈 안받고 글 쓸때가 즐겁습니다. 지금은 마감이 있으니 편집자들이 무섭습니다. 이럴 때는 담대하게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거라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때는 무용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 악마들과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술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뉴욕에 있을 당시, 뉴욕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뒤에서 보니까 배우 프로필이 적혀있는 걸 자세히 읽어보니 배우의 이력이 적혀있었습니다. 그 운전사에게 당신 배우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셰익스피어 전문배우라며 리어왕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리어왕은 미친 사람이라 명배우만 하는 것인데 열심히 본인의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리어왕의 멋진 대사를 읊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대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말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직업도 여러 개가 될 것입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곧 택시기사이면서 배우가 될 수 도 있고 낮에는 우체국 직원이면서 밤에는 작가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될 때 그 중 하나쯤은 예술가를 가지면 어떨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워낙 직업이 자주 바뀌는 데 어쩌면 예술가의 정체성이 더 지속적일지 몰라요. 오히려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평생 글만 쓰고 노래만 부르고 연극만 해왔거나 했던 사람이 그제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진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택시기사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뉴욕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TV에서 현대무용의 전설적인 마사 그레이엄 여사가 90년대 초반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그녀에게 어느 기자가 무식한 질문을 했는데 “한국의 무용학도에게 어떻게 하면 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딱히 귀찮아하지 않아 보였는데 힘이 없는 목소리로 ‘just do it’이라고 말하고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뇌리를 크게 때리는 말이었고 지금도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하고자 할 때 학생들 어른들 모두가 수백까지 이유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시작하고 첫 한 줄을 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사 그레이엄이 하는 말이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 본 원고는 김영하 소설가의 강연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 개막식 강연 02 / 에른스트 바그너 박사 (유네스코 석좌교수)

> 존경하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 김영하 소설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막식에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유네스코에게 있어서는 실로 가장 중요한 지지자라 하겠습니다. 한국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한국 정부의 제의로 2011년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 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국제 기념행사를 유네스코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상을 다룬 국제적으로 중요한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태동시킨 한국에 직접 와서 연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과 전세계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전세계 문화예술교육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은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금융위기, 실업, 문맹, 시민권의 침해, 기아, 군사적 긴장, 분쟁과 전쟁 등 커다란 도전과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소음 속에 파묻혀 사그라지곤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국제사회에서 결의에 찬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전세계 유네스코 체어(UNESCO-Chairs)와 유네스코 옵저버토리(UNESCO-Observatories)로 구성된 문화예술교육국제연구네트워크 (INRAE)를 의미합니다. INRAE는 유네스코의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단체로, 100여 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연구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독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40여 개국 130명의 연구자들이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위해 훌륭한 슬로건을 채택한 한국 주최측에 축하드립니다

말을 걸다, 이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한 전세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 여정, 다시 말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한 발짝 다가가 말을 거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업, 문맹, 기아, 군사적 긴장, 시민권 침해 등 전세계에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보아왔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각국 정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인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문화 요소(Culture Factor)”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야말로 모든 정신과 태도, 습관, 관점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노력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에 예술이 있습니다.

예술은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예술이 문화를 형성하고, 정신을 형성하고, 문제해결방식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의 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60년 동안 지속된 분쟁이자 유럽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분쟁을 꼽으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뜨겁게 치달았다가 또 어떨 때는 차갑게 냉전으로 돌아서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두 나라의 분쟁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글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치면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사진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과연 서로 총구를 겨누고 쏠 것인가? 서로를 죽일 수 있을까? 저렇게 가까이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분명 예외도 있을 텐데요, 몇몇은 이에 저항할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소수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소개한 이 프로젝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꿈에 다가가 말을 걸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슬로건처럼 우리가 모두에게 말을 걸 때, 비로소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2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그는 유대인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입니다. 바렌보임은 미국 시카고 교향악단과 프랑스 파리 관현악단을 포함해 전세계 여러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Berlin State Opera)과 웨스트-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의 종합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웨스트-이스턴 디반은 200년 전 독일 문호 괴테의 작품 “서동시집”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영상에 괴테 기념비의 모습도 잠시 보였죠.

바렌보임 프로젝트의 내부 구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두 개의 집단을 “제 3의 스페이스(third space)”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죠. 제 3의 스페이스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두 집단이 함께 그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청중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은 미(美)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예술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는 또한 도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와 청중이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그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제 3의 스페이스로서의 예술(arts), 둘째 - 공동 창작(joint creation,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심미적 고찰을 위한 것), 셋째 -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person of integrity), 넷째 - 달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goal)가 바로 그것입니다.

### UNESCO

이제 다시 유네스코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유네스코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취지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예로 들어볼까요? 전문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어린 학생이 부르는 노래, 교회 예배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학교 합창단에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즐거운 노래도 있고, 거리에서 랩을 하는 젊은이들, 심지어 전쟁에 끌려 나온 소년병들의 노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각각 다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한 규범적 가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바로 이러한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니엘 바렌보임 프로젝트의 네 가지 성공요소를 말씀 드렸는데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중대한 목표, 즉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중대한 목표를 위한 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UN이 수립한 인권을 위한 틀, 그리고 중기적 전략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은 우리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이번 주간 행사의 슬로건인 “모두에게, 말을 걸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중대한 목표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

되어야 하며 매년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곳 한국에서 개최된 <2010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 대회>의 주요 결과물인 서울 아젠다는 2010년 이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적이고 참여적인 논의 속에서 유네스코의 규범적 접근법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라 하였습니다. 서울 아젠다는 지난 주 독일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중요한 참고문서로 활용되었습니다. 전세계 주요 도전과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참고 프로젝트 목록(catalogue of projects of reference)을 발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가진 “내부 구조(inner grammar)”를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개진이 있을 텐데요, 이번 회의의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교육국제연구네트워크(INRAE)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것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4가지 접근법

참고 프로젝트 목록은 또한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INRAE 회원이자 저와 같은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의 학과장이신 에카르트 리바오(Eckart Liebau) 교수가 사진의 중앙에 서 있는 분인데요, 이 분이 국제적인 경험들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4가지 기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1. 경제적 접근법 (economical)
2. 유산 및 문화적 다양성 접근법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3. 사회정치적 접근법 (socio-political)
4. 교육적 접근법 (educational)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접근법은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접근법이 주장하는 바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창의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필요로 하는 역량이죠. 창의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핵심 역량, 특히 소통과 협력하는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자와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수학 인지 능력 향상 등의 파생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적어도 창조 산업(미디어 포함)의 발전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논리는 선진국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현대화 담화의 한 부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교육, 특히 학교교육 문제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접근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산과 다양성에 기초를 둔 또 하나의 매우 강력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1972년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등 세계 유산을 발굴/보호/보존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05년에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공표했습니다. 이 협약은 문화적 습관과 실행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유산협약만큼 널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특히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 협약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수년간 확대되어온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본 협약의 제 10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공공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접근법은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사회적 통합과 예방 및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 치료수단입니다. 이 접근법은 교도소에서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술 치료와 같은) 개인적 치료 환경에서부터 사회교육학 내의 여러 창의성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 환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렌보임의 프로젝트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요, 개인의 사회정치적 참여는 선진국들의 주요 중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접근법은 특히 중앙유럽의 문화예술교육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접근법으로,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한 교육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교육을 독일어로 “Bildung”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Bildung”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ildung”은 생산적이고 수용적인 예술 경험을 통한 인성 발달과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노래하고 춤추고 역할 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어릴 때 배운 이러한 활동들은 평생 지속성을 갖게 되며,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인류학적인 기반과 함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기본 접근법들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게 아니라 이 4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 접근법들이 바로 그 해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접근법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동일한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 독일

이번엔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활동하는 많은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STEM,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조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독일의 경우, 한쪽에는 연방/주 정부,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재단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이 존재합니다. 양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여러 재단들 중에서 메르카토르 재단(Mercator Foundatio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카토르 재단의 주요 관심사는 독일의 문화예술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문화 교육(cultural education)” 이라 부릅니다.

“문화 사회 2020”이라는 기치 아래 메르카토르 재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지식의 습득, 인성 형성, 창의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웹사이트의 프로그램 소개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그리고 교육적인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식과 창의성의 습득[경제적 측면과 관련], 인성 형성[Bildung과 관련], 지속가능성[사회정치적 측면과 관련]”

메르카토르 재단이 후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접근법들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르카토르 재단은 구체적인 혁신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지원합니다. 가령 예술을 통한 언어(LTA, Language through Art) 프로젝트는 학교 밖에서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활용해 언어를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이 풀크방 미술관에서 적극적인 예술적·심미적 참여활동을 통해 언어 표현 및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학교 내에서도 문화/언어 매개자를 위한 공동자격인증제도, 젊은 교사들을 위한 연수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술은 회화에서 보듯 오브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험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 관찰한 대상을 재연하거나 특정 작품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봄으로써, 언어 미숙으로 인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두려움을 없애고 동기부여를 유발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중요한 예술작품, 그리고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기관에 익숙해짐으로써 어떤 장벽이든 허물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학교의 문화적 프로파일을 구축/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6년간 약 400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독일 연방문화재단의 “창의학교를 위한 CA(Culture Agents for Creative Schools)”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것인데요, 학교들이 아티스트,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A” 또는 문화매개자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표입니다. 현재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트너 간의 장기적인 협력 사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1/2012년도 학기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독일 내 5개 주의 138개 학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목표들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다양한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린이들이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예술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연스런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화와 예술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가르치고, 인성 형성/강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미래에 어린이들이 문화적인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서 독일의 민간 활동 전략과 관련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프로젝트와 체계 구축은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접근법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슬로건과 연결하여 해석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모두에게, 주변에 말을 걸다”는 문화예술교육의 민주적 접근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약속, 참여의 약속을 뜻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다양성의 논리와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죠. 또한 여러분의 슬로건 중에 “꿈에게, 말을 걸다”라는 부분은 “Bildung”을 연상시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극작가이며 시인인 쉴러는 앞에서 언급한 괴테의 절친이기도 한데요, 그는 “Bildung”이라는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놀 때 가장 인간답다.” 이 인용문을 여러분의 슬로건에 맞게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사람은 꿈을 꿀 때 가장 인간답다.” 감사합니다.

## 개막식 강연 02 / 에른스트 바그너 박사 (유네스코 석좌교수)

> Distinguished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istinguished President of Korean Arts & Culture Education,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itation to speak here.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take part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eek of Arts Education in Seoul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pecially KACES, has always been a staunch proponent of arts education and surely its most significant supporter in the context of UNESCO. In 2010, Korea hosted the very successful UNESCO 2nd World Conference in Arts Education; and last year, UNESCO, together with Korea's culture ministry, co-hosted the international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first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that had been proposed by Korea. In addition, KACES has regularly published and circulated an important, internationally recognized newsletter ab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arts education.

Now that I have the privilege of being a guest here to speak in the country where these innovative initiatives originated, I woul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 personally say: Thank you to all the people being responsible for these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KACES. Thank you for the wonderful work you have been doing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here and beyond the borders of Korea. On the basis of your untiring efforts your country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voice in arts education in the world.

Especially now, in the current world situation, arts education needs strong support. We are facing big challenges and arts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But the gentle voice of arts education is often overheard in the midst of all the noise. In this situation, I am glad to have your voice, the clear, resolute voice of KACES in the world and to have you at our side.

In this case, "our side" / "my side" means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

tion, a group of UNESCO-Chairs and UNESCO-Observatories around the world that forms the core of UNESCO's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The 130 researchers in arts education from more than 40 countries who attended a conference in Germany last week asked me to deliver this greeting to you.

While preparation for this conference in Germany was underway, we decided to publish an International Year 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To move on to the subject of our conference toda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rganizers for the slogan they have chosen:

A Step Closer to All,

A Step Closer to People Around,

A Step Closer to Everyday Life,

A Step Closer to One Another,

A Step Closer to the World,

A Step Closer to a Dream,

A Step Closer to Tomorrow.

What a wonderful slogan: A step closer! Yes: A step on a long wa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world I just mentioned before. A step on a way we have to go.

We see thousands of attempts to solve existing problems around the world, e.g. unemployment, illiteracy, hunger, military tensions, civil rights. Although a multitude of experts, governments, and volunteers are trying to solve these crucial and existential problems most of them tend to concentrate on solving a particular problem without taking the whole broad cultural context into consideration. And most of them fail - for this reason. I am convinced that these efforts, undertaken with the best intentions, are approached too narrowly defined. They forget the "Culture Factor." Culture is the texture, where all kinds of mentalities, habits, attitudes, perspectives are based.

The following example illustrates what I mean.

One of the most disturbing conflicts in the back yard of Europe, having lasted longer than 60 years now, i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If one looks for "Israel - Palestine" on

Google, one can find the following pictures on the first page of results, showing the tensions of this conflict.

When we look at the faces of these two men from the two countries, we ask: Will they aim and shoot each other? Will they kill each other? I dare to say, yes, they would. They would, if a specific constellation allows it.

But there are exceptions; there are some who wouldn't. They would resist.

What this projects shows, is that arts education cannot be something for only few or particular people. To have one step closer to the dream of peace one needs that this experience is shared by all ordinary people. Only then, when we take a step closer to all – like your slogan declares – we will have successful arts education.

Just let me tell you more about Barenboim's project: Barenboim is the general music director of the German Berlin State Opera as well as the West-Eastern Divan Orchestra. The name of the latter is based on the title of the book "West-Eastern Divan" by Goethe, Germany's most important writer, who lived 200 years ago. You briefly saw the monument to Goethe in the video.

The inner structure, the "inner grammar" of Barenboim's project seems to be quite simple: To bring together two groups in a "third space", which is neutral for both and where the two groups create something new, new for themselves and new for the audience. The new thing, the creation, is something which belongs to the realm of beauty, the realm of the arts. And beauty has the power of transgression. In this example we can find four factors, which form the "inner grammar": First, the arts as a third space; second, joint creation (which is not free of conflicts - but one that is bound to aesthetic considerations); third, a person of integrity, whom people can trust; and fourth, a goal which is worth working for.

#### UNESCO

Let me come back now to the issue of UNESCO. Why is it important to deal with art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UNESCO? I think there are a lot of reasons, but there is one main one. Arts education can be used or misused for various purposes. That is why we need a normative framework of values within which we are able to define the purpose of the efforts undertaken in arts education. UNESCO can deliver this framework.

I just mentioned the four factors of success of projects like Daniel Barenboim's, but the fourth factor is what I would call "the important goal." UNESCO delivers the framework for these important goals. "Education for all" is one of the main goals – again, you can find here a close link to your slogan "a step closer to all." The Seoul Agenda, the major outcome of UNESCO's 2nd World Conference, is the best example of how UNESCO's normative approach has been developed in mutual and participative discussions to face the current challenges. The Seoul Agenda served as the central reference document during the discussions at our meeting last week in Germany, too. It was proposed there that we should perhaps publish a catalogue of projects of reference, projects which give an adequate answer to the main challenges of the world. These projects would be discussed and commented on by experts in regards to their structure, to reveal their "inner grammar" – like mentioned above. Perhaps this could be a joint project of INRAE together with KACES?

#### Four approaches

Such a catalogue of projects of reference could also show the diversity of approaches to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Reflecting on international experiences, Professor Liebau, INRAE-member and department chair at my university – he is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screenshot – named four basic approaches to arts education:

1. economic
2.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3. socio-political
4. educationa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pproaches, the economic approach has potential economic profits in view. The main argument is the increase of creativity by means of arts education. Creativity is understood as a skill which our societies will increasingly need in the future. Besides the creativity argument, there are more expectations in regards to other key-competencies, especially communicative and cooperative abilities. These diverse outcomes should have, at least, a direct economic effect – not only, but mainly on the growth of the creative industries. This rationale is very popular in modern, developed societies.

In a contrast, one can find another very influential approach that is based on the heritage and diversity. In 1972, UNESCO adopte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in 2005,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is convention strives to protect the diversity of cultural habits and practices. The growing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in this context during the last years can be discovered in Article 10: Article 10 says, that the parties shall: "encourage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convention] through educational and greater public awareness programs [...]"

The third influential approach is the socio-political one, which stresses questions of social integration and prevention. Here arts education is seen as a social therapeutic means of highest potential. One can find this in many kinds of therapeutic settings from prisons to hospitals, from individual therapeutic settings (like art therapy) to the different fields of creativity in social pedagogy. Barenboim's project belongs to this category.

One more approach, which traditionally dominates the field of arts education especially in Central Europe, focuses on the educational processes in regard to the intrinsic value of the arts. In Germany, we use the German term "Bildung" for education in this sense and it seems characteristic that there is no translation for this term in English. "Bildung" aims at the development of one's personality, aims at the enrichment of the biography through experience of the arts in productive and receptive processes. Thereby arts education is see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quality of life.

Please let me emphasize that all of these four basic approaches are equally valuable. One cannot claim that one approach is better than the other one. Different circumstances need different answers; and the four approaches that I have explained are these answers. And all of them follow the idea that arts education must give these chances to each person.

#### Germany

Let me give you an example in Germany: In Germany one can find many agencies and stakeholders whose goal it is to foster arts education and to bring it to all the people around, to every day life. We have governmental bodies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engaged on the one hand; and several private institutions, especially foundations, on the other.

I would like to introduce one of these foundations, the Meracator Foundation. One of their main interests is to foster arts education in Germany – They call it "cultural education", as you can see on the front page of their website.

Mercator Foundation claims: "We wish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in Germany. Education must play a key role if our society is to continue to thrive in the future, as this is the only way we will be able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globalised world. The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fo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personality formation, creativity and sustainability is still often underestimated. ...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creativity, personality formation, and sustainability." One can find the four approaches here combined.

Looking more closely at the projects Mercator support, we can identify this same mixture of approaches again. Mercator Foundation supports the initial phase of concrete innovative projects. The Language through Art project uses the arts to promote language acquisition in a fun and creative way outside the school environment. School students of migrant background broaden their linguistic expression and capabilities through active artistic-aesthetic engagement in the Folkwang-museum.

"Art offers a number of highly concrete ways in which to engage intensively with objects and experiences, such as paintings. Students can use their own bodies to re-enact what they have seen or can paint or draw for themselves the impression they have gained from a particular picture. This makes it easier for them to express concepts that they may not yet be able to describe using language. The project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approach language in a playful manner, dispelling fears and building motiv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are also familiarized with important art works and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a museum. This helps break down any barriers."

I hope I could give you some insight into the strategy of a German private foundation; however I would like to add, that from my standpoint as an academic at the university, it is important that such projects and structures should be founded in the context of research.

I will attempt to interpret your slogan in reference to the four approaches without misinterpreting their original meaning.

A Step Closer to All,

A Step Closer to People Around,

A Step Closer to Everyday Life,

A Step Closer to One Another,

A Step Closer to the World,

A Step Closer to a Dream,  
A Step Closer to Tomorrow.

In my eyes "A step closer to all, to the people around" means a democratic approach to arts education. It means a political promise, a promise of participation. And this aspect is connected to the diversity approach. People are always manifold, multifaceted, and diverse. In the second part of your slogan, especially in the phrase "a step closer to a dream, I recognize the approach of "Bildung." Schiller, the famous German philosopher, writer and poet, was the closest friend of Goethe, who I mentioned earlier. Schiller had great influence on the concept of "Bildung." I would like to quote one of his famous sentences: "Man is only fully a human being, when he plays." In reference to your slogan, I would like to modify this quotation slightly: "Man is only fully a human being, when he dreams." Thank you very much.

## 폐막식 축사 /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훌륭하게 열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원장님과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창기에 유네스코와 함께 시작하여 전국단위로 서울 및 지역에 일주일동안 40,000명 참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부터 어르신까지 각계에서 많이 노력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모든 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우리의 삶, 국내외 이슈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어느 각국으로 문화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가 존중받는 가운데에서 한국 문화가 존중받고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59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1950년에 전쟁을 발발하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국가였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도움을 준 손길이 유네스코입니다. UN에 가입되기 전 인쇄공장을 설립하여 초등학교 교과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맨땅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짧은 시일 내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어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분야에서도 유네스코 활동이 힘차게 뻗어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협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유네스코 학교가 11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 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의 총괄 사명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네스코는 후원 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유니세프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후원 기관 사업을 하고 있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의 장점인 콘텐츠를 심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함께 예술과 아름다운 가치를 공유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한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이번 한주간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60년 동안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힘차게 뻗어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원고는 민동석 사무총장의 축사를 녹취한 내용입니다.

## 폐막식

/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 제 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폐막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라는 주제처럼 일상 속에서 상상력과 소통의 힘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다시 행복한 일상의 희망과 열정을 되찾는 시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이번 주간 행사는 언제부터인가 분리된 영역으로 치부되던 삶과 예술의 고독한 경계를 허물고 문화예술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해와 올해, 두 차례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체험과 그 과정에서의 의미를 모아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자면 저는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에는 사람과 행복, 그리고 열정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두가 누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문화, 즉 문화융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제가 던지는 첫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문화예술 작품은 작가의 창조 현장에서 나오지만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일상을 향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연히 문화예술교육의 주인은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을 '교육'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가르친다는 의미보다 문화예술을 통해 '느끼고, 교류하고, 가까워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의 힘'을 스스로 찾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체험하고 찾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능력과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한다고 하면 자칫 무엇인가 교양있고 좀더 품위있는 삶에 대한 욕구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프고 서로 등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아프다고 말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행복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문화예술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치유와 행복의 에너지'를 얻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제가 던지는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방법론이라고 하는 공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먼저 좀더 근본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에너지는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옵니다.

‘열정’은 식지 않는 마음이며, 잠시 지칠 수는 있어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힘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치유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열정’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열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지 질문을 통해 ‘사람’이 열정적인 체험속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행복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과 ‘열정’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과 열정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행복’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의 행복은 감정과 관계, 소통의 에너지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정에너지는 일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 속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일상의 변화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희망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바로 이 ‘희망의 긍정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예술인,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심리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통섭의 교육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을 구성하는 두번째 에너지는 바로 관계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은 ‘주변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고독한 현대인’이라고들 하는데 그 표현 속에는 고립되어서 외롭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화예술교육이 사람들에게 행복의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교류하고 공감하는 공동체적 관계의 복원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행복을 구성하는 세번째 힘은 바로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자연과 사회 모두의 말을 듣고, 말을 걸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에너지가 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렇게 소통을 통한 감정의 교류와 이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지향함으로써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행복’과 열정’중에 ‘열정’이라는 방법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열정’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림’과 ‘창의’와 ‘변화’의 열정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귀한 ‘문화예술’일수록 바라보고 감상하고 모셔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는 창조는 남의 일이 되고, 상상은 동화나 영화 속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바라보기와 소비를 넘어서서 일상속에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화예술교육이 도와야 합니다.

‘열정’ 공학의 또다른 중요한 축은 일상의 창의입니다. ‘창의’라는 단어가 때때로 ‘뛰어남’, ‘우수함’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에서 ‘창의’는 ‘스스로 보기’에서 출발해서 ‘다르게 보기’ ‘적극적으로 보기’의 능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일상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보게’ 하는 열정을 문화예술교육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열정’의 또다른 힘은 낮은 일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전한 일상을 원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일상은 그 바람과는 상관없이 끝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최근 한류와 같은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를 ‘문화적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문화적 테크니션을 많이 보유한 나라’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나라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낯설고 두려운 이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 행복을 위한 창조적 열정을 키워주는 문화예술교육!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당장 해야 하는 혹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제 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 보다 분명한 소명의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내 밥벌이로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하고 원활 때 쉽게 다가가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현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에서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속에서 열린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해지려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역 공동체 중심의 풀뿌리 네트워크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미디어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직접 체험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수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소명의식과 열린공간, 풀뿌리네트워크, 다양한 매체 활용 등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제 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간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지난 몇 달간 고군분투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추진단, 그리고 주간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진흥원 식구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간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은 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기획자분일 것입니다. 기획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속에 해마다 5월이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 폐막식 현장의 메시지 01 / 이승희 (부산 배영초등학교장)

> 지금 돌이켜봐도 가슴 설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일 년 전, 저희 어린이들이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아흔 다섯 개 나라 팔백 여 명의 문화사절 앞에서 우리 모듬북을 연주하였는데 이날 공연장에는 문광부 장관님과 박재은 원장님께서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연은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와 공동 주최한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 본부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연주는 본교 역사에 남을 일이기에 부산교육계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 해 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교인데 진흥원에서 국가대표로 유네스코 무대에 세웠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본교는 김해 공항 남쪽, 낙동강 변에 있는 전교생 60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학교 안에 사슴, 공작, 토끼 등이 학생 수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과일나무를 모두 길러 일 년에 500명 정도의 원아들이 생태체험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국에서 열여섯 개 학교가 '예술꽃씨앗학교'로 지정될 때 본교도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예술꽃씨앗학교'로 지정되면서 전문 강사를 더 많이 초빙하여 부산농악을 더욱 심도 있게 지도하면서 연극, 무용, 영상과 각종 양악기까지 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손잡고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어린이 문화교류 20주년을 맞아 지난 1월에 전교생이 일본으로 수학여행 겸 연주여행을 가서 풍물과 우리 음악을 연주하자 키리시마 시장이 '공민관이 생긴 이래 최고의 무대였다'라며 극찬을 하였고 일본 학교에 우리 사물악기를 선물했을 때 본교 어린이들은 우리 국악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요즘 본교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보면서 일본 교육자들이 「한국의 힘, 배영의 힘」이란 표현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육활동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고, 연간 스무 차례 정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손님들이 본교를 방문하는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도대로 본교는 문화예술교육의 명문학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막식 현장의 메시지 02 / 이복계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온 이복계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2분간 스피치를 하려하니 하고 싶은 말들이 두서없이 나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려서 정신이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에게 제2의 인생을 마련해 주셔서 주책없는 저희들은 일류 연극인이 된양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노년을 즐긴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품위유지라는 것을 지녀야 될것 같아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닌것 같아요. 또 우리 연극반을 울력반이라고 하지요, 울력반이란 여러 회원의 힘이 모여서 무보수로 남을 돕는거라나요.

또 저희들 뒤에는 복지관 선생님들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올해도 선생님의 지도아래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05. 참고 자료 >>

## 05-2 참가자 소감

### 모두에게, 말을 걸다

> 아주 짧고 지극히 작았지만,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내 힘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격스러웠다. 3주가 지나간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나의 '공식적인 몸짓'을 떠올릴 때마다 삶에 의기소침하던 내 안에서 문득 솟아오르는 열정이 느껴진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만의 몸짓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었다니!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_몸SNS를 위한 전무후무〉참가자

### 주변에게, 말을 걸다

> '마을 아리랑 - 김봉준과 함께하는 나의 소망, 마을의 꿈 전'이라는 다소 길고 복잡한 제목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작업실에 찾아가서 작가를 섭외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섭외하고, 독려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이동하고, 해체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노심초사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마을 아리랑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어 널리 전파한 것과 군포문화재단 출범 첫 전시회를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와 함께했다는 것에 남모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그림 액자를 증정해드리는 일이 남아 있다. 액자를 받아든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_마을 아리랑〉디렉터

> 다 힘들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다는 걸 확인했어요. 후련한 것 같고, 인터뷰 중 더 솔직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느낀 것은 원래 힘든 거 있으면 혼자만 끔찍안고 가잖아요. 아픔을 나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아픔을 나눈 거 같아서 힐링이 좀 된 거 같아요.

/〈특별한 인터뷰\_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참가자, 성동고 3-8반

### 일상에게, 말을 걸다

> 부산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려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생겼다니! 활동하는 내내 즐거웠다.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안내 데스크 자원활동가

> 평소에 나만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참가한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는데,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즐겼던 것 같다.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스토폴션 애니메이션 강사

>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재밌는 행사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매년 이런 행사가 열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나도 너무 즐거웠다.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참여자 학부모

**서로에게, 말을 걸다**

> 나는 진정한 예술가인가?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물음표에 정답은 없겠지요.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경기> 예술강사

> 시골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처럼 공연을 관람한 적도, 예술 수업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최고의 배우이자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우리의 수업을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오랜만에 예술교육가로서의 가치와 존재를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위해서!

/ <예술체험 원정대\_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예술강사

**세상에게, 말을 걸다**

> 가경터미널시장 문전성시 사업단에서 달아주신 행복한 간판. 드디어 소소하고 뜻깊은 글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님들과 좋은 글로 소통하기를 즐겨했던 저로서는 좋은 칠판을 선물 받아 더없이 행복합니다.

/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_시장과 사람들, 청주 가격터미널시장> 참여 상인

> 아무리 각박한 곳이라도 그곳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음악과 함께 장사하신다는 시장 상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틀어놓으신 선율이 다른 이의 가슴에도 전해질 거라 믿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곳의 한 미술가로서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_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신당중앙시장> 참여작가

**꿈에게, 말을 걸다**

> 아마추어 팀들이 처음 녹음 부스에 들어설 때, 그 설레어 하시는 마음은 옆에서 지켜보는 제게도 생생히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또,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비주류 밴드도 희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업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디렉터

>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광장 등 여러 곳에서 공연을 접해보았는데, 이번처럼 가수 개개인이 작은 무대를 꾸며서 버스킹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신선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단 한 명의 관객일지라도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이 열정적으로 느껴져 좋았다. 이렇게 가깝게 가수와 관객이 만나는 자리를 자주 경험하지 않은 까닭인지, 계속 여운이 남는다. 다음에는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도심 어딘가에서도 문득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 <광화문의 거리약사들> 참여 관객

**내일에게, 말을 걸다**

>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해온 사람이었다. 타인과 같아질 것을 문화와 정치 도덕으로 묶어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투쟁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었다.

/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참여 관객

> 문화예술교육을 과거-현재-미래로 구성해 다양한 방면으로 토론하고, 그에 따른 풍성한 자료집이 마련된 것이 가장 좋았다.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홀 바깥에서도 관련된 여러 자료를 관람한 점도 좋았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예술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를 거시적으로 재고해볼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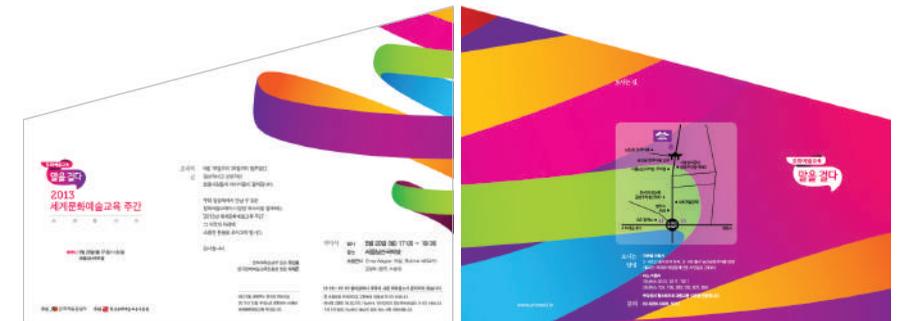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포럼\_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참여 관객

05. 참고 자료



# 05-3 홍보 제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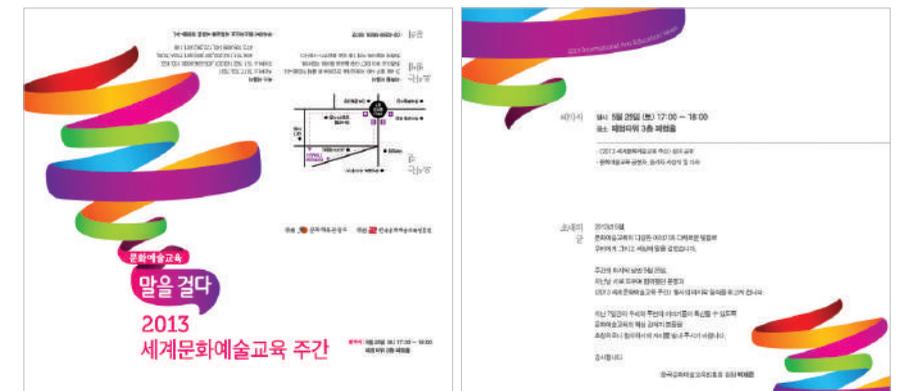
## 개막식 초청장



## 메인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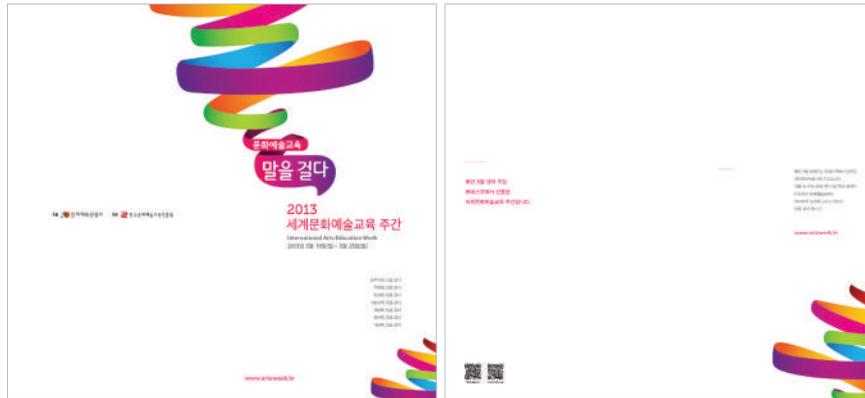
## 폐막식 초청장



## 봉투



프로그램 북



리플렛



응용형 \_ 대외 홍보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벽 배너



문화체육관광부  
외벽 배너



국립극단 담벼락  
외벽배너



홈페이지 & 앱

홈페이지



자이언트 배너



앱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06

>>

참여하신 분들

>>

0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예술국	김태훈 국장
문화예술과	정상원 과장, 강성태 사무관, 김현목 사무관, 송수혜 사무관, 강규식 주무관, 김주연 주무관, 최성훈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은
----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추진단**

단장	박창준 행정지원 실장
실무총괄	유유미 창의교육센터 팀장
실무	창의교육센터 김서연, 송혜경, 김한아 _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국내 행사 총괄 실행 _ 개폐막식 및 주간 행사 특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술포럼	황지영 교육개발 팀장, 김자현 국제교류 팀장

**각 프로그램별 협력팀**

교육진흥본부	정연희 본부장
_ 교육개발팀	황지영 팀장 _ 문화예술교육 포럼 :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_ 국제교류팀	김자현 팀장 _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사업본부	성혜령 본부장
_ 꿈의 오케스트라 TFT	노현실 팀장 _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 시스템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즈윅
_ 대외협력팀	김륜희 팀장 _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 언론홍보
_ 학교교육팀	김태연 팀장 _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행정지원실	박창준 실장 _ 개막식 및 폐막식 의전
전략기획팀	기영준 팀장 _ 개막식 및 폐막식 의전

**행사 총괄 대행**

총괄 운영	(주)비타민컴 / 이희원 정수진 송진아 김효선 염진영 남윤후 김지윤
언론홍보	이지스컴
슬로건 및 BI	네임넷
디자인	디자인 이튼 / 이희철 이봉주 김현아
홈페이지	토닥 / 조아신 엔클
앱	이종은
홍보영상	스튜디오 디저트 빛그림
기록 촬영	고두현 강현석 조희진 김지용
사진	이맹호 이기을
아트북	공혜진

**모두에게, 말을 걸다**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前無後無)**

디렉터	안은미컴퍼니
출연자	안은미, 고흥균, 정완영, 남현우, 전수희, 김혜경, 김기범, 정영민, 박시한, 하지혜, 배효섭, 옐로우몬스터즈, 한밭
참여자	김혜연, 김예나, 장미, 최세라, 오지은, 전윤나, 김이령, 이연미, 여하니, 박영옥, 고경옥, 김아람, 최서우, 남은옥, 심성혜, 전강희, 황진아, 김지영, 이수연, 키타자와케이, 현남숙, 장효경, 김민정, 양반김, 유수진, 황윤제, 이유미, 김예나, 박고은, 류소영, 박은영, 최주희, 최혜원, 조문영, 안세열, 조현영, 이하나우, 한아름, 송안나, 이유성

**개막식**

디렉터	(주)비타민컴
축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하 공연 1	극단 연미,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학생·예술강사
강연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유네스코 석좌교수) 김영하 (소설가)
축하 공연 2	인제남초등학교 (예술꽃씨앗학교)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개막 선언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주변에게, 말을 걸다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다, 마을 아리랑

디렉터	군포문화재단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군포, 안양, 서울 시민

특별한 인터뷰, <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디렉터	문화예술 놀다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성동고등학교 1~3학년 남학생 (44명)

[특별한 하루] 한글, 손글씨와 놀다\_명예교사 강병인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용주초등학교 학생
--------------	-----------

[특별한 하루] 대풍이네 마지막 글요일\_명예교사 노익상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지역주민
--------------	------

일상에게, 말을 걸다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서울 & 광주

디렉터	사회적기업 노리단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서울 어린이대공원/광화문 광장〉 기획 및 운영 (6명), 강사 (8명), 진행요원 (17명) 〈광주 문화마루〉 기획 및 운영 (6명), 강사 (8명), 진행요원 (16명)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대전

디렉터	사회적기업 노리단
프로그램 운영	조선그루브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기획 및 운영 (2명), 프로그램운영 (10팀), 공연팀 (3팀), 행사진행요원 (10명)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춘천

디렉터	사회적기업 노리단
프로그램 운영	몽땅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기획 및 운영 (2명), 프로그램운영 (10팀), 공연팀 (3팀), 행사진행요원 (10명)

서로에게, 말을 걸다

[워크숍 박람회\_들어볼까? 르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부산

디렉터	사회적기업 노리단
프로그램 운영	(주)부산노리단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부산지역의 미술, 제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6명) 예술꽃씨앗학교 공연팀_ 서명초등학교 (37명) / 배영초등학교 (43명) 거류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송운초등학교, 나드림미션스쿨 등 사전참가 (150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디렉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TFT
프로그램 운영	140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전국 54개 사립미술관
--------------	--------------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서울] 예술강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즐고있던 Artist를 깨우다!

디렉터	안령 (공예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박지은 (무용, 주제발표자), 황중선 (만화애니메이션, 주제발표자)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대전] 오래된 시작 새로운 끝\_예술강사의 웃을 입다

디렉터	강미영 (연극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강경윤, 강도은, 강미영, 강미현, 김 민, 김성진, 김순옥, 김형진, 송민경, 신선희, 이경진, 이동규, 최승완, 성호경 (기록) 참관 및 관계자 3명 등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서울] 예술강사,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다!

디렉터	박종현 (국악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임하정 (국악 예술강사 / 발표), 최혜영 (사진), 서인혁 (영상+스텝), 한정훈 (드로잉 / 3D / 스텝), 윤미경 (연극 예술강사 / 모뎀대표), 오혜진 (연극 예술강사 / 모뎀대표), 장은아 (국악 예술강사 / 모뎀 대표), 송승민 (국악 예술강사 / 서기), 임셋별 (국악 예술강사 / 서기), 손영아 (국악 예술강사 / 서기)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전주] 예술강사가 만드는 행복한 교실**

디렉터	임승한 (공예 예술강사, 전북통합문화예술교육연구회 '비 빔')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임승한, 마지승, 어미순, 소인영, 진재원, 심경미, 홍다인, 한자순, 심경미, 윤선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인천] 예술 + 교육 = 예술교육?**

디렉터	신운섭 (연극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이경옥 (발제자, 국악) 예술강사 및 지역예술가 (만화/연극/무용/사진/영화/국악) 서울문화재단/자바르떼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서울] 불꽃을 피우자!\_꿈은 이루어진다!**

디렉터	이효광 (디자인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 관계자 등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부산] 우리는 왜?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디렉터	예정원 (미술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부산 외 경상지역 (울산, 대구, 경남) 예술강사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_경기] 내가 하는 예술교육이 예술이다!**

디렉터	우선영 (무용 예술강사)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김태우 (영화), 임미영 (무용) 등 예술강사

**[예술체험 원정대] 우당탕탕 신나는 우리학교**

디렉터	김보라, 김원진, 김시내, 윤수연, 박정용, 김은호, 유은미, 차정희, 유효정, 박상준 (예술강사)
주요 참가자	매화초·중학생, 외룡초등학생, 월곡초등학생

**[예술체험 원정대] 이상한 학교의 앨리스**

디렉터	김빛난, 강지윤, 고유진, 권소정, 김윤정, 김현정, 안령, 이연주, 이지은, 이효광 (예술강사)
주요 참가자	외암초등학생, 대병초등학생

**[예술체험 원정대] 화를 풀고, 화끈하게, 화목한 소통~ 화통**

디렉터	나수아, 이정훈, 탁정은, 임혜진, 박미정, 이혜경, 조은영, 박안숙, 곽지영, 홍희주 (예술강사)
주요 참가자	화령초등학생, 아포초등학생

**[예술체험 원정대] 네 개의 방에서 보물을 찾아라**

디렉터	강정은, 허혜민, 조창우, 민선해, 이지현, 성보희, 노종림, 조아람 (예술강사)
주요 참가자	남성현초등학생, 칠서초등학생

**[예술체험 원정대] 4色행복 비빔밥**

디렉터	이지은, 이선화, 전신영, 한정수, 곽창호 (예술강사)
주요 참가자	함안중학생, 지족초등학생

세상에게, 말을 걸다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시장과 사람들**

디렉터	시장문화예술공동체 있소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이광진 (총괄기획) 김영범 (시인, 스토리텔링 강의, 순회강의 및 전시지도, 결과물 발간) 권희돈 (청주대 명예교수, 특강) 황명수 (화가, 간판디자인 및 제작) 이성희 (연극인, 라디오 방송 기획 및 진행) 김선구 (다큐작가, 영상 제작)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지역생산과 그들의 이야기**

디렉터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신경순 (아이툰대표, 만화강사), 송민혜 (손바느질 강사) (강사) 성청미, 서정혁, 장선미, 김자연, 서영희, 송순덕, 황일류 외 3인 (수강생) 박근수, 김소라 (진행자)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디렉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임주영, 최선, 이충우, 이규연, 오민준, 시장상인 1,333명

꿈에게, 말을 걸다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디렉터	레이블 키친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20개 밴드 및 솔로 60명 및 스태프 등 (80명)
20개 밴드	Lil marvel, 솔가, 군포 플루트 앙상블 (K. F. E), 어느새, 알로하, 꽃가랑 (꽃이 있는 강), DAMIAN, 슬아연, 길바닥로망, 조용성, 박태경, 신순호, DJ Chadoll, E-goon, 나비다, 싹룩밴드, 비건웨이브 (VeganWave), 박주영, 프리마베라, 오주연, 세남자, 성연영

광화문의 거리약사들

디렉터	신촌콘서트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세남자, 세정, 사나운 복숭아, 기타쿠스, We R Magic, 요술당나귀, 솔가, 사람또사람, 나잇어클락, 어느새

내일에게, 말을 걸다

토크쇼, 말을 넘어서 : 해외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대중문화

디렉터	스톤앤워터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에릭 스콧 넬슨 Eric Scott Nelson (미국), 치카히로 하나무라 Chikahiro Hanamura (일본), 헬토그&나드 Chaja Hertog and Nir Nadler (네덜란드), 맷 개일 Matt Gale (Matthew Jeremy Gale) (미국), 모더레이터 Moderator 김종길 (전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현 경기문화재단 책임 연구원), 김광철 (행위예술가) Gim Gwang Cheol (Performance artist): 게릴라 행위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디렉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교류팀
출연자 및 주요 참가자	리 샤오펑 (Li Shaopeng, 중국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아시아부처조사연구원) 황 향쥘엔 (Huang Hangjuan, 절강성예술직업학원 당위원회 부비서) 션 쥘쥘 (Shen Jun Jun, 려운항시 예술학교장) 사토 토루 (Sato Toru, 일본문화청 장관관장 국제과장) 츠츠미 야스히코 (Tsutsumi Yasuhiko, NPO '어린이와 예술가의 만남' 디렉터) 요시노 사츠키 (Yoshino Satsuki, 아이치 대학 사회인문학부 부교수) 고불이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대표)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연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시스템아 혁신(오케스트라 교육의 변화) : 캐나다 뉴브런스윅

디렉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TFT
출연자 및 주요 참가	켄 맥클라우드 (Ken Macleod, 캐나다 시스템아 뉴브런스윅 행정총괄 겸 CEO) 안토니오 델가도 (Antonio Delgado, 캐나다 시스템아 뉴브런스윅 음악감독) 김중휘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훈 (서울시립교양악단 음악감독) 김진수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유원선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디렉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개발팀
출연자 및 주요 참가	김종석 (용인대학교 뮤지컬연극학과 교수)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상훈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전고필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청년사업팀장) 문 영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교수) 김귀배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 팀장) 임수준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현옥 (aec비빔팜 대표) 최현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승호 (서울시교육청 문예체도서관팀 장학관)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경제적 센터장)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폐막식

축사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문화예술교육	이승희 배영초등학교 교장 (예술꽃씨앗학교)
현장의 메시지	이복계 (2012 청춘연극제 참여 어르신)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성과 공유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축하 공연	프리마베라 ('밴드의 리어카, 광화문을 굴리다' 참여팀), 세남자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발행인	박재은
발행일	2013. 09.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week.kr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웹진	www.arte365.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ejockey
문의	02-6209-5900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센터
디자인	(주)비타민컴

등록번호	KACES-1370-C001
ISBN	978-89-6748-057-8 0337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마품



0 3 3 7 0

9 788967 480578

ISBN 978-89-6748-057-8

